

권덕철 복지장관 “4차 유행 전국화...거리두기 연장, 최선의 선택”

[칼럼] 너무나 대지 마라 아직 8개월 남았다

도축장·육류가공업체 등 감염 위험시설 선제적 방역 관리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의료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참여로 감염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우리는 더욱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점증률을 바탕으로 한 마스크를 벗었던 국가들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이날 권덕철 장관은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런데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요양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우리는 더욱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점증률을 바탕으로 한 마스크를 벗었던 국가들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이날 권덕철 장관은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운송기사, 영업사원 등 외부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들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81.7명으로 그 전 주간(7월 25일~31일)의 158.1명에 비해 23.6명 증가했다.

지난 한 주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36.6명으로 지난주(959.7명)에 비해 23.1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58.8명으로 지난주(546.2명)에 비해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아예 전국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51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업무를 보는 곳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주요 거점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며 퇴임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권력이자 하루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가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앞에 고양이들이 들락거리는 풍경이다.

아예 호랑이 수염을 잡아당기는가 하면 호랑이의 실재를 헌법재판소의 판사보다 더 엄중하게 꾸지람하고 질책하며 위협이라고 호통 친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코로나19의 확진 숫자도 조작이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업포를 놓는 것이라 단정 짓는다. 그 말이 사실이라 치자.

지금까지 뭐하다가 마치 레임덕이 온 것처럼 이 난리를 칠까. 벌써 문재인 정부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뿌려댄다니 그러한 공포 조장으로 정권의 폭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동의지를 약화시키고 국가체정의 기초를 흔들는다고 떠들 어댄다.

지금까지 뭐하다가 코로나에 감염 되더라도 대부분 환자가 아무 증상이 없으며 특별한 약물투여 없이 완치된다.

중증환자는 극소수에 머무르고 치사율도 낮다며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까. 이쯤 되면 이미 고양이의 입장을 벗어나 막가자는 얘기가.

만약 이 같은 지적이 맞다 치자.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거나 트집을 잡자는 뜻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를 대놓고 무시하고 바보 만드는 언행들을 제3국에서 볼까 두렵기 때문이다.

어떤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고 집안에 기강이 서지 않으면 이웃집에서 우습게 보는 것과 같다.

이취임식장에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권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엄청 속았다는 판단이 든다.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부자나라로 집 걱정 안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아이 낳기를 질색하며 살았을까.

이제 정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역세권도 월 60만원으로 평생 살 집이 가능하다고 공약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성남 공학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짓겠다고 구체적 내용까지 공약했다. 어떤 후보는 동일을 공약으로 내놓는가 하면 20명도 넘는 후보들이 자신만이 대안이라는 식이다.

덕담/김균식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의료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참여로 감염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요양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우리는 더욱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점증률을 바탕으로 한 마스크를 벗었던 국가들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이날 권덕철 장관은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우리는 더욱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점증률을 바탕으로 한 마스크를 벗었던 국가들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이날 권덕철 장관은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136개 도축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의 상시점검과 농식품부 불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도축장에 상주하는 도축 검사관(지자체) 및 품질평가사(축산물품질평가원)를 통해 주 1회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축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정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 접종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업체 단위로 일괄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의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도축장이 내부에 위치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빈도를 높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공용 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등 종사자의 방역관리,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방역 세부지침을 외국인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영문본과 함께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3개 국어로 추가 번역해 제공하고, 쉽게

해 7만 4864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7개 분야 총 8만 197곳의 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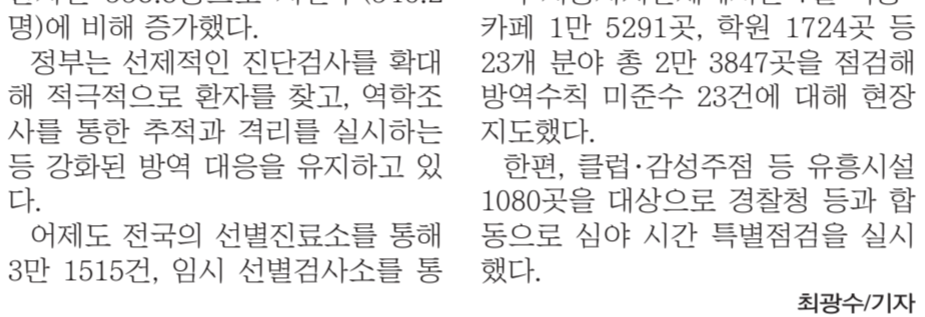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만 2534건을 적발해 이 중 1465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1만 1069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했다.

정부는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 및 유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일 식당·카페 1만 5291곳, 학원 1724곳 등 23개 분야 총 2만 3847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0곳을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광수/기자



최광수/기자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월 30만원 지원

정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이달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자립수당은 이같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만 대상이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이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도 가능하다.

최만식/기자

정부가 오는 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확산의 불길은 아직도 여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음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올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줘야 한다”며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는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방역수칙 중 실외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기가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순남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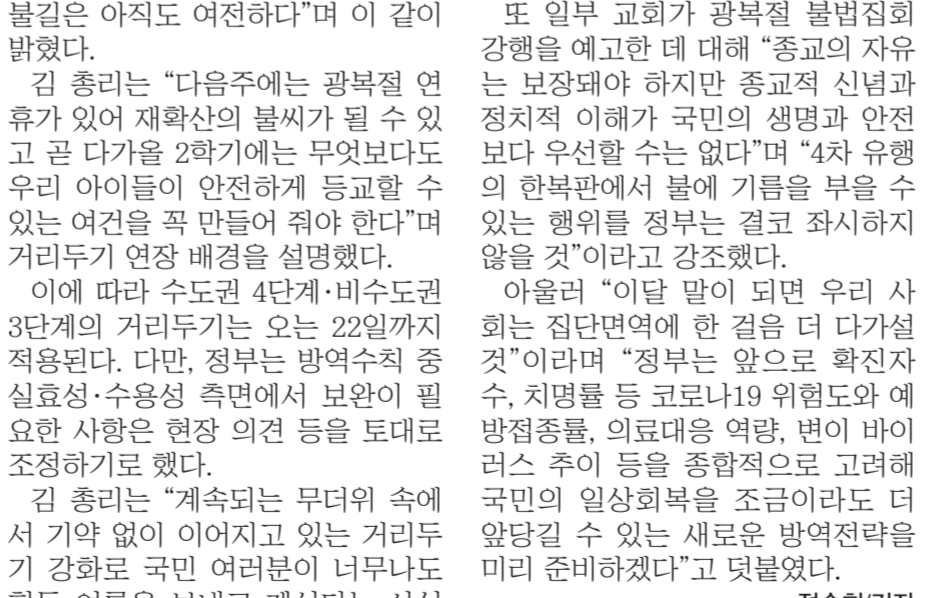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며 “지금까지 1년 7개월 이상 고통을 감내하면서 버텨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주 정도 남은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과 관련 “정부는 이번 2학기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습, 사회생활, 정서함양 등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방역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방역상황을 감안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초에 교육부가 국민에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교회와 광복절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말이 되면 우리 사회는 집단면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 수, 치명률 등 코로나19 위형도와 예방접종률, 의료대응 역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순희/기자



전순희/기자

제천비행장 일원에 형형색색의 백일홍 “활짝”



최만식/기자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 '부산지역 납품도매업 지원에 대한 조례'결국 시의회 공포(21.8.4.)

도용회 의원, '부산지역 납품도매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안 시의 재의요구로 의회 의결하였으나, 부산시가 공포하지 않아 결국 시의회 의장 공포(21.8.4.)

지난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래구2)은 납품도매업체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발의하여 통과되었다. 그리고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7월23일)에서 부산시가 재의요구를 해오자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친 후 과반수 이상 의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다시 부산시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시의회에서 8월4일 부산시보를 통해 의장이 공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 의원은 부산시의 재의요구에 대해 이미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납품도매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다.

도 의원이 발원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라는 발언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총4만3천명에 달하는 부산시 납품도매업자들이 그 오랫동안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부산시로부터 받기 위해 납품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납품 시 차량정차로 인해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반야야 하는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해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리고 “1991년 광역기초의원 선거로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좋아졌고 커졌지만, 여전히 자치권 실현을 위해 독립적 정책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재의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역할이 요원해 보입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도 의원은 “부산에 있는 많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 현상들을 보면서 보다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부산시 납품도매업자들은 ‘을 중의 을이며, 버려

진 자식’이라고 한 소상공인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이 아니기에 사용할 수도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거래처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 현금화할 수 없어서 집에 쌓아놓고 있고, 납품하기 위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정차인데도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에는 1.5분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만, 그것도 도로에서 15분 이내로만 정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납품업자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조례가 상정되기 직전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부산경찰청 고시팀 직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담당부서, 그 외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고시부분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시 개정하고 구군에게 협조를 구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즉 이 부분은 법률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도 의원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부산시의 납품도매업자들만의 고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의요구 등으로 인해 부산시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타시도와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하여 법 개정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강력히 조례안이 퇴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지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본회의 의결 전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도 의원은 납품도매업체 지원 조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경찰청과 구군협의를 통해 주정차 시간과 다소 완화시켜 달라는 것이었고,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는 지방자치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 법령으로 들면서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의요구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납품도매업체의 이러한 고충은 부산시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 납품도매업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며,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먼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모든 절차를 받아 내겠다는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의요구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 부산시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받아 의결된 본 조례에 대해 공포를 하지 않고 부산시의회에 공포에 대한 바쁨을 넘긴 것이다.

이에 도 의원이 제정하였고 부산시가 공포를 하지 않아 결국 공포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시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것이었다.

도 의원은 이후 부산시가 본 조례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볼 것이고, 부산시 또는 행안부가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의지를 관철할 것임을 강하게 밝혔다.

남영경기자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 부유식 풍력발전 반대 어선어업인 면담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6일 오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부유식 풍력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어선·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울산광역시어업어선인연합회(대표 강신영) 회원들은 이날 “정정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울산 어업인들은 원자력발전이 이어 풍력발전 건설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특히 “울산에는 어업종사자가 5만 명, 어선이 830여 척이나 되지만 울산

시가 어업인을 철저히 무시한 채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자가 지급한 보상금(상생자금) 70억 원을 두고 어촌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어선어업인연합회는 국민의힘에 제출하는 ‘부유식 풍력 사업발전 철회 탄원서’를 고호근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기현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실현가능한김포공항이전 정부·서울시 적극 나서야!

인천국제공항, 제4·5활주로 확대로 수용 승객↑, 철도노선 확대로 접근성↑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유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항 이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을 환원한 다며,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유형찬 교통위원장은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가 개통되어 운영 중이고, 계획 중인 제5활주로 완공 시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4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6월 17일 오전 1시부터 제4활주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여객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제5활주

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유형찬 교통위원장은 “도시에 인접해 항공기 운항에 한계가 존재하는 김포공항의 기능을 비행기 운항에 유리한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공항운영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의 경우 김포·제주공항에 이어 F급 대형항공기 착륙 대체공항으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 대체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의 김포공항을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공항철도 증편 및 GTX 노선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신설은 수도권 어디에서든 인천국제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항과 철도망 간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결국 인천국제공항으로의 기능 이전을 통해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서울서남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해소음, 대기오염 및 고도제한 등의 불이익 해소, ▲남겨진 김포공항 부지에 질 좋은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공급문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전반적으로는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인프라 수출, ▲공항철도·인천대교·영종대교의 역할 회복에 따른 적자 해소, ▲청주공항과 군산공항 활성화로 국가균형이 이

루어지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유형찬 교통위원장은 “김포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주민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실현가능한 정책이고,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회와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항 이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을 환원한다.”고 밝히면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광수/기자

문화수도 울산! 콘텐츠 정책연구회가 울산시의 숨어있는 기념물 제10호 방기리 알바위 현장답사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수도 울산! 콘텐츠 정책연구회’(회장 이미영 의원)는 8월 6일 10시, 통도사 성파 스님과 간담회를 갖고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0호 ‘방기리 알바위’와 통도사 땅바위를 현장 답사하였다.

현장답사에는 문화수도 울산! 콘텐츠정책 연구회 회장인 이미영 의원, 박병석 의장, 이시우 의원, 정책자문단으로 위촉된 울산대 김언배 교수, 철새홍보관 김성수 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방기리 알바위는 방기리 하방마을 입구에 있는 유적으로 ‘알바위’는 알모양의 구멍들이 있는 바위를 말한다. 지난해 울산대 반구대암각화 유적보존연구소가 발견한 학술연구총서에서 ‘한국의 바위구멍 암각화’가 처음으로 종합조사결과가 실렸다고 한다.

방기리 알바위는 발견 당시 성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방기리 알바위’로 되었다. 26개의 크고 작은 바위에 많은 것은 1개에 50여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는 등 성혈군으로서 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 청동기시대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심자형 암각’과 ‘단순동심원암각’이 발견되어 관심을 모았다고 한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성파 스님은 “방기리 알바위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의 장소로 반구대 암각화나 천전리 각석이 지닌 시사성에 결코 뒤쳐지지 않을 만큼 역사가 깊다.”고 강조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존 되고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울산시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보급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영 의원(연구회 회장)은 방기리 알바위 제단 형상을 보고 “우리 울산에 반구대 암각화에 버금가는 선사시대 역사 현장을 보니 감동이다.”며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0호로 발굴과 연구, 보존 등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연구회 차원에서 적극 공감하고 집행부에 조사 발굴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인천형 다문화가정 교육을 위해 통합형 글로벌 학교교육 필요

인천시의회,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개선 영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형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해 통합형 글로벌 학교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개선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오상)’는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개선 연구 : 인천한누리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개선 연구’ 용역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실태 파악은 물론 그 문제를 찾아내 보다 발전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인천지역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다문화교육 및 국내 타지역 다문화교육의 사례, 인천한누리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인천한누리학교를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문화융합연구소 김영순 교수는 “인천한누리학교가 본래



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 다문화 환경 변화와 다문화 밀집지역 학교 지원정책 변화 등에 따라 학교체제의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의 운영 형태와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을 비롯해 통합형 글로벌 학교로서의 변화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오상 의원은 “그간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해 공유할 수 있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한누리학교가 우리 나라 대표 다문화 공립학교로 발돋움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의회 임지훈·김진주·김성수 의원, 인천한누리학교 성윤미 교장,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서해주 장학사, 인하대 산학협력단 다문화융합연구소 최승은 선임연구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김종남/기자

전남도의회, 섬 주민을 위한 정책 도입할 것



섬 발전연구회,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제

전남도의회 섬 발전연구회에서는 지난 6일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갖고 섬의 날 국가기념일 기념으로 개최된 ‘섬 미래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섬 공동체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가지 주제로 지난 4월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목포대학교 박성현 교수는 ‘전남도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에서 전남 섬 지역 현황 및 관련 사업 및 제도 등을 분석하여 ▲전남 섬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방향 ▲섬 관광활성화 방안 ▲섬 경관관리 추진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남 섬 지역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섬·어촌 지역의 인구현황과 국내외의 사례 및 대응 전략 방안을 분석하여 ▲노동인구(여성·청년·어업인) 소멸 대응전략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방안 ▲인구유입 촉진 및 커뮤니티 기반 강화 방안 등의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나광국(무안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한 목포대학교 연구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보고회에 이어 ‘섬 미래포럼’에 참석한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는 타 지역보다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고령화 증가 등의 구조적인 섬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섬만의 차별화된 정책 도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정광호(신안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섬 관광은 여행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재충전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면서 “올해 초 「도서지역 여행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만큼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숨겨진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과 섬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를 위해 한 걸음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발전연구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실제 섬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및 입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 내선 (112) 문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 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 부: 내선 (114) 으커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연 락 처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구로구, '안심홈4종세트' 지원

여성 1인 가구, 한부모·미혼모 가족 대상... 잠금장치, 안전센서, 긴급벨 등

“우리집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구로구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또는 미혼모 가족을 대상으로 ‘안심홈 4종 세트’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혼자 지내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구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잠금장치, 안전센서, 긴급벨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홈세트 4가지는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는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외부에서 창문이 열리는 것을 막는 ‘창문 잠금장치’, 움직임을 감지하고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휴대용 비상벨을 당기면 경보음이 울리고 지인과 112에 문자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긴급벨’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세대), 법정한부모 또는 미혼모 가족이며 아파트 거주자나 자가 소유자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디지털로 31길 93,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심홈 4종 세트’가 여성 1인 가구를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스마트도시 동대문구, 구민 손으로 만들어 가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추진 등...스마트도시 조성 속도

동대문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하는 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동대문구의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8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민 대상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을 포함한 행정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생활전반 및 지역 인프라 정보화 ▲스마트도시 인지도 및 선호도 관련이며, 설문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동대문구청 및 14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도 설문지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동대문구만의 차별화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번 설문 실시에 앞서 6월 향후 5년간의 동대문구의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영역에 착수하고, 스마트도시 비전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연차적·단계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정보기술의 변화를 반영한 정보화기본계획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 또한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오는 9월 입법예고 후 구민의 의견을 받고 10월 중 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초 조직을 스마트도시기획팀, 스마트도시관리팀, 빅데이터팀, 스마트관제팀 등 4개 팀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구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채로운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IoT 기반 전통시장 화재알림, 고독사 위험가구를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동대문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2, 119와 연계하는 안전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4차 산업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스마트도시로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서울역사편찬원, 강좌로 떠나는 랜선여행 ‘세계도시설명서’ 수강생 모집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서울시민의 역사교육과 역사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04년부터 서울역사강좌를 개설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시민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세계도시설명서》라는 주제 아래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비전과 닮은 듯 다른 세계 도시를 알아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강좌는 8월 27일(금)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15강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 강좌는 주제별로 세계 여러 도시와 서울을 비교해 보는 구성이다. 서울의 과거와 닮은 도시로 베이징, 하

노이, 타이베이 등을 살펴보고 문화재와 함께 사는 도시 로마, 2천년 역사를 기반으로 혁신하는 도시 파리로 알아본다. 또한 올림픽과 도시 성장이라는 생, 다인종·다문화의 모델인 싱가포르도 알아본다. 이외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의 복지, ‘녹색도시’ 브라질 꾸리치바, 이집트 카이로, 미국의 워싱턴 D.C. 등 다

강할 수 있으며, 상호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을 가기 어려운 요즘, 강좌로 떠나는 ‘랜선여행’을 계획해보면 어떨까? 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역사 함께하기’→‘서울역사강좌’에 들어가면 수강신청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대표 이메일/팩스 등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이 100명 이상될 때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한다.

최광수/기자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 2021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선정

강동구는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1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 '도서관에 가면, OO도 있고'에 선정돼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는 공공도서관을 일상의 문화 활동 매개 공간이자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강화·확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서울 시내 총 14개 공공도서관 중 '강동구립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은 혁신적인 소통형 공동체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책과 차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다독다독은 문화예술 기반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이번 프로그램을

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은 ▲모두가 낭독 ▲시로 그리는 마을 지도 ▲시가 살아있는 한국 가곡 부르기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의 문화 예술적 소양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의 초빙 강연 ▲예술 공연 체험 ▲문학관 탐방 ▲결과 발표회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다독다독 1호점과 2호점은 주민들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결과 발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 교류는 물론 공간 개방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독다독은 주민들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작년 9월, 1호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호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다독다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주민들에게 친근한 쉼터가 되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문화 혁신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운영 앞둔 '서로e음가게' 방문... '현장 소통'

이 청장 “민·관 협력해 결실 앞뉘, 주민의 자발적 참여 중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9월 시범 운영을 앞둔 서구 '서로e음가게' 예정지 '신현원마을'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서구가 추진하는 '서로e음가게'에서는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선정된 환경부 공모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순환자원 회수센터 '서로e음가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 장소 '신현원마을'을 찾은 이재현 청장은 '서로e음가게' 운영방안 및 재활용품 유가 보상 시행 계획 등 사업 추진사항을 살피고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서로e음가게’ 운영은 지역주민과 유기적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구의 행정적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서구가 추구하는 ‘국제환경도시’에 걸맞은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로e음가게' 시범운영 장소로 선정된 '신현원마을'은 재활용 봉투 무상배부, 재활용품 실명제 운영 등 그동안 서구 자원순환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마을이다. 이번 '서로e음가게' 운영을 더해 서구를 대표하는 친환경 마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로e음가게'는 오는 9월부터 '신현원마을'에 위치한 마을관리소(새오개로 48번길 22-1)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이다.

김종남/기자



계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 공사는 계양초, 계양초상야반교, 양촌초, 소양초를 대상으로 지난달 대상지별 필요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을 선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노면에 속도제한표시 설치, 안전펜스 교체설치와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가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강동구, '강동서당' 하반기 참여자 모집!

강동구가 반려가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강동서당'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강동서당'은 강동구의 대표 반려견 교육으로 참여 희망자가 수개월 전부터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구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과 반려견에 대한 각종 정보, 상담을 제공하여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이웃과의 갈등을 겪는 반려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부터 올해 하반기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 3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강동구민을 우선으로 접수하며 참여희망자는 반려견 등록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방법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구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찾아가는 공동주택 반려견 교육,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규석/기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 권의 그림책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

광진구 청년·신진 예술가 그룹이 참여한 '나루의 발견' 프로젝트 일환

광진문화재단이 오는 8월 17일까지 나루아트센터 전시실에서 '미완성 그림책 원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진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인 동화작가 그룹인 '백지장'에서 준비한 것으로, 모든 연령대가 관람 가능하다.

전시에서는 ▲소형차 ▲여름꽃 ▲우주선 ▲이한재 ▲최미리 ▲한얼 작가의 그림책 원화 30여 점과 드로잉, 디미북(초벌 책)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한 권의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오프라인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입장 시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람 인원 또한 시간당 5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나루아트센터 전시실을 그대로 구현해 낸 온라인 VR(가상현실) 공간을 통해 작품 관람과 오디오가

이드까지 즐길 수 있다.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며, 광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온라인 VR 전시관 도입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구민이 다양한 전시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남 광진문화재단 사장은 "이번 전시가 광진구 청년·신진 작가들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온·오프라인 관람을 통해 참여 예술가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청년·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시각예술 분야 공모 프로그램인 '나루의 발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모는 지난 3월 진행되었으며, 오는 11월에는 박영철 조각가가 개인 전시를 열 예정이다.

강성원기자



종로구, '내가 바라는 스마트도시 종로' 그리기 공모전

종로구는 오는 9월 17일까지 '내가 바라는 스마트도시 종로'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 도시에 대한 주민관심을 높여 향후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사회를 이끌 어린이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관내 거주하는 어린이 누구나 '내가 바라는 스마트 도시 종로'라는 주제로 도화지 위에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

방법은 9월 17일까지 종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응모작과 함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원본 후면에는 소속, 성명, 연락처, 작품 제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구는 1차 내부 심사 후 스마트도시협의회 위원과 미술 분야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스마트한 대상'과 '기발한 최우수상', '실현가능 우수상', '무한상상 장려상' 등 총 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결과는 10월 5일(화) 발표한다.

공모전 수상자 8명의 작품은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수상자가 직접 도슨트가 돼 본인의 목소리로 작품을 해설하는 영상이 종료TV 및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중 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기발한 아이디어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실제 스마트도시 사업에 녹여낼 계획"임을 밝히며 "기발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처럼 종로 어린이의 상상이 종로 스마트도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작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동대문구, '희망 Job GO'에서 취업의 희망 잡아요

동대문구, 8월 23일부터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취업 알선, 진로 상담 등

동대문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구인 및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열어붙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자 '2021 동대문구 희망 Job GO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대문구 온라인 취업박람회 누리집에서 진행될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에서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연결은 물론, 자기소개서 특강, 진로 상담 등의 컨설팅도 진행된다. 아울러 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인기업은 홍보 영상도 게시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릴 수 있다.

구인기업 모집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7까지, 구직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채용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화상)면접 이후 기업에서 채용을 확정하게 되며, 자체 화상 면접 운영이 어려운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화상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사전예약을 받아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면접, 진로상담 등의 온라인 컨



설팅을 진행하고, 자기소개서 항목별 특강, NCS 면접특강, AI채용 취업전략, 유형별 면접특강 등을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여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에게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인천동구,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실시

소상공인 살고 · 간판업체 웃고 · 코로나19 극복하고

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옥외광고 사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업소와 휴·폐업 이후 신규 창업하는 업소의 간판 교체·신규 설치 비용을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광고주는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접수 절차가 완료되면 광고주(소상공인 등) 지원대상 적격여부와 관내 소재 옥외광고사업자에 간판 제작·설치 의뢰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율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7개 업소의 광고주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활력을 되찾아 드리는, 작지만 든든한 응원이 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용산구, 청년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울 용산구가 2021년 구 청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청년인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 내 청년이 전공과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채용인원은 5명이며 기간은 4개월, 근무기관은 용산공예관(3명)과 전쟁기념관(2명) 2곳이다.

용산공예관에서는 비주얼머천다이저(VMD, visual merchandiser)·도자기 체험 보조강사·영상물 제작 및 홍보 등을, 전쟁기념관에서는 유물정리·아카이브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근무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임금은 2021년 구 생활임금(시간당 10,702원)을 적용하며 월 240만원 가량 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용산 구민 또는 용산구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로 모집분야별 참여요건을 갖춘 자다.

용산공예관은 외국어 능통자·영상·플 사용 가능자·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를, 전쟁기념관은 준학예사·기록물관리사 등을 우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용산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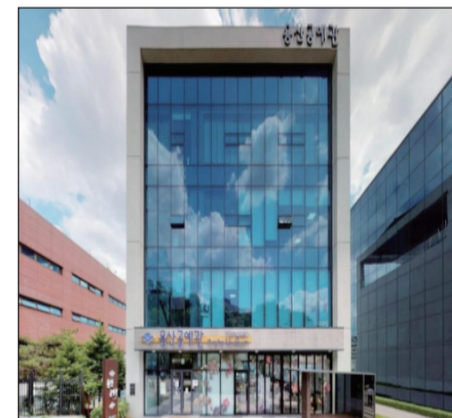
일자리경제과(5층)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용산구 관내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구직등록필증,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서류·면접심사 후 오는 19일 합격자를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23일부터 근무한다.

성장한 용산구청장은 "갈수록 역사·문화·예술관련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가 힘든 현실"이라며 "기왕이면 취업문이 좁은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한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2년간 청년 인턴 사업을 진행해 17명에게 전쟁기념관,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서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만식기자



내가 소개하는 광진구의 좋은 점...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전 국민을 대상으로 8월 22일까지 광진구 홍보 영상콘텐츠 개최



광진구가 구민의 구성 관심도를 제고하고, 광진구를 널리 알리고자 '광진구 홍보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내가 소개하는 광진구의 좋은 점'으로, ▲광진구 주요 명소 ▲광진구 즐길거리·볼거리·먹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광진구 정책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나만의 광진구 즐기는 방법 등을 담으면 된다.

참여 대상은 전 국민 누구나이며, 영상형식은 브이로그, 뮤직비디오, 다큐, 애니메이션 등 자유형식으로 제작된 3분 이내 단일 영상물이다. 단, 영상 내용에 광진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8월 22일까지 공모전 신청서 및 설명서, 응모작 동영상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평가는 영상 전문가가 평가 80%, 유튜브 온라인 투표 20%가 반영되며, ▲창의성 ▲정보성 ▲대중성 ▲활용성 ▲완성도를 중점으로 평가한다.

공모전 발표는 오는 8월 31일이며,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장려상 5명(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7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광진구의 장점을 알리고자 영상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라며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진구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강남구, 폭염 취약한 어르신에 호텔 안전숙소 제공

'기본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중인 강남구가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등)을 위해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구는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강남, 호텔페이트삼성, 호텔프리마,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강남 등 4개 호텔과 협약을 맺고 40객실을 확보했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표 시 1박2일 또는 2박3일 동안 최대 2인 1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구민이 직접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퇴실 당일

거동 불편 등으로 차량제공이 필요한 어르신은 동주민센터에서 숙소까지 차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숙소를 이용한 한 어르신은 "집에서는 에어컨이 없어 매일 밤 뒤척였는데 여기서는 시원하고 쾌적해 숙면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정동희기자



경남도, 쿠팡 김해물류센터 코로나 방역점검



물류센터, 고위험 사업장 지정·특별방역 수칙 적용

경상남도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도내 전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김해시 등 일부 지역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쿠팡 김해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쿠팡 김해1물류센터는 1만㎡ 면적에 3층 규모로 냉동·냉장창고를 갖춘 신선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물류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특별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경남도는 방역수칙과 관련해 △방문자 명부 작성 관리, △체온계 비치, 발열체크,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전체 근무자가 방

역수칙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최근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 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소방 시설 및 총별 보관 물품 현황, △화기·위험물질 취급, △비상구 폐쇄, △전기·가스시설 관리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 함께한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많아지면서 물류센터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실국별로 소관 국장 책임 하에 방역취약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도내 주요 물류창고 13곳을 점검했다.

최광용기자

동구, 휴가철 맞아 숙박업소 방역·불법촬영 집중점검

울산시 동구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에 대하여 방역 및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산해수욕장 주변 모텔 등 숙박업소 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환기 및 소독,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방역수칙 미게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일부 업소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객실, 화장실 등의 벽 틈새와 구멍 등을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사용하여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에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숙박업자가 업소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및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는다.

동구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용객들이 숙박업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오산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단속 실시

오산시는 사업장 관리가 취약해지는 하절기 휴기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전했다.

특별점검·단속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6일까지다.

특별점검·단속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기록 및 운영상태 확인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법

령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점검기간 동안 미흡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실시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과상옥 오산시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사후 지도·단속 위주에서 사전 예방과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전환해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질병관리청, 접종·방역 사각지대 접종 시행 계획을 확인하세요!

일반 접종 참여가 어려운 대상에 접종 방역 사각지대 접종이 시행됩니다!
[접종 대상]

-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의료기관 자율접종
-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
-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 ◆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워 감염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 사전예약 시기 : 8월 5일~ 8월 21일
- 접종 일시 : 8월 26일~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예약 방법
- 콜센터(☎1339, 지자체)
- 온라인(<https://ncvr.kdca.go.kr/>)
- 보건소 현장예약 지원 병행 예약 후 방문 접종[접종 전과정에 대해 장애인 접종편의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사전예약 지원 : 콜센터, 보건소 현장예약 지원
- 시설점검 : 예방접종센터 내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 *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확보, 접종 안내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등
- 이상반응 모니터링 : 장애인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위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활용 홍보
- * 보호자 미동행 장애인 접종 완료

후대기시 접종 관찰

- ◆ 의료기관 자율접종*
- * 중증질환으로 재원 또는 수시 외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간병인 포함)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방법 : 희망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 [접종세부 절차]

- ① 질병청 → 의료기관 : 지침 안내 및 참여 의료기관 수요조사(8월초)
- ② 의료기관 → 질병청 : 참여의사 통보 및 백신 요청 (일정, 물량)
- ③ 질병청 → 의료기관 : 백신 및 주사기 공급
- ④ 의료기관 : 의료기관 내 자체접종 시행 및 시스템 입력

◆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

장기간 선상생활, 3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 등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국제항해 종사자

- 백신 종류 : 안센* 또는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방법 :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거점지역(부산·인천·여수·목포)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 신속 접종
- *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접종 완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접종 권고
-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선정(단, 접종편의를 위해 항만 인근 보건소 우선).
- 안센은 보건소에서 즉시 접종, 화이자 또는 모더나는 보건소에서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 말소, 입국이력 부재 등으로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불가능한 사람
- 백신 종류 : 안센* 또는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방법 : 보건소에서 현장등록 및 임시번호 발급 후 접종. 단,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접종 완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접종 권고
-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재은기자

수원시, 15일까지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특별 점검

수원시가 15일까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1314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수원시는 15일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관내 노래연습장 721개소와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개소를 특별점검한다. 점검은 8월 5일 시작했다. 공직자 340여 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게임제공업소의 4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8월 4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처분을 위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후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띄우기 없음)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게임제공업소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회**

양주시, 건강 쌀 디저트 만들기 교육 수강생 모집

양주시는 오는 16일까지 다양한 가공품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쌀의 소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 쌀 디저트 만들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쌀 중심의 우리 식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우리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양주시에 거주하는 학부모이며 총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건강 쌀 디저트 만들기 프로그램은 자녀와 함께 우리 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 시청 후 쌀을 활용한 견과쌀강정, 단호박식혜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비용은 무료다.


교육에 필요한 기본재료는 프로그램 진행 전 참여 가정에 택배로 발송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쌀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곡물로 쌀을 활용한 디저트는 자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건강 쌀 디저트 만들기 교육생 모집

| 일시 | 내용 | 비고 |
|------------------------|---|----------|
| 8.21(토) 10:00~12:00 | - 우리 쌀 홍보 동영상 시청 - 쌀 디저트 만들기(견과쌀강정, 단호박식혜) | 지역 (온라인) |

모집기간 2021.08.06(금)~08.16(토) | **신청일** 08.17(토) 12:00
대상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영유아) | **대상자제한** 50명(당첨자에 한하여 50명정함)
모집인원 50명 | **신청처** 농촌진흥청 생애주기센터
교육비 무료 | **문의** 031-8082-7231
신청방법 네이버 밴드(100000000)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 신청서 다운로드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제9회 광명시 청소년정책공모전 '나도 시장이다' 개최

경기도 광명시, (재)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서일동)이 주최하고, 광명시청소년수련관(관장 김홍열)이 주관하는 제9회 광명시청소년정책공모전 '나도 시장이다'에 참가할 광명시 지역 내 청소년을 오는 8월 21일 까지 공개 모집한다.

제9회 광명시청소년정책공모전 '나도 시장이다'는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및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개인 또는 2~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광명시 지역 내 9세~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정책제안의 주제는 제도개선, 공공서비스, 참여, 안전, 교육, 문화, 스포츠, 고용, 복지, 교통, 환경 등 청소년과 관련되거나 지역주민생활에 관련된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광명시청소년정책공모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정책제안서를 21일 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정책제안하기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제안정책을 정책전문가 및 지역전문가들의 컨설팅 후 9월 4일 본선 면접심사를 거쳐 광명시장상, 광명시의장상, 광명교육지원청장상, 광명시청소년재단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제9회 광명시청소년정책공모전 '나도 시장이다'

모집일정 2021년 8월 3일(화) ~ 21일(토)

제출 방법 1. http://gmyouth.net 공지사항 - 신청제안서(신청서 다운로드) / 제안서 및 관련자료 작성 후 이메일 접수(031-8082-7231@gmyouth.net) / 2. 홈페이지(gmyouth.net) 정책제안하기 메뉴를 통해 참여

참가 대상 광명시 거주 또는 광명시 영구소재지 주민 청소년(9세~24세) 누구나
*본인 신청 가능 / 팀 신청 가능 / 팀원 2~4명

공모전 일정 - 서류심사: 8.21(토) 17:00 서식제출 및 심사, 본선: 9월 4일
- 컨설팅: 9.28(토) 14:00 컨설팅을 받은 후 발표
- 본 선: 9.4(토) 14:00 광명시장상 수상
- 광명시의장상, 광명교육지원청장상 수상
- 시상대상: 광명시청 정책제안, 안전교육 확산 / 광명시청소년정책공모전 결과 발표

신청제안서접수 http://gmyouth.net/

시상 내역 광명시장상 / 광명시의장상 / 광명교육지원청장상 (각종상품, 장학금 등) / 수상장 / 광명시청소년수련관

문의 사항 광명시청소년수련관 활동수련팀 031-8082-7231

| 주최 | 광명시 | | 주관 | (재)광명시청소년재단

특히, 이번 청소년정책공모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의 청소년정책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김홍열 관장은

“제9회 광명시청소년정책공모전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제안해 광명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김남주/기자

남양주시, 시민을 위한 정신 건강 자가 검진 및 마음 건강 로켓 처방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인 우울, 불안 등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자가 검진'을 운영 중이다 밝혔다.

'정신 건강 자가 검진'은 검진을 받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신 건강 전문 요원과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을 진행해 마음 속 고민과 힘든 점을 이야기하며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제나·어디서나·누구나 편하고, 간단하게 자신의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면 24시간 이내에 상담받을 수 있는 '마음

건강 로켓 처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마음 건강 로켓 처방'에서 처방받은 내용을 실천하고 홈페이지에 후기를 올리면 오감 키트를 배송해 준다. 오감 키트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건강 필수 아이템들이 담겨 있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정신 건강 자가 검진과 '마음 건강 로켓 처방'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마음 건강 케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정신건강! 삶의 최우선가치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알려드립니다.

자기관리 | 비용개상담 | 치료비지원 문의평가 | 찾아오시는길 | 마음

김포마루, 8월부터 모바일에서도 만나요

김포시는 시정소식지 '김포마루'를 8월부터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매월 5만 5,000부가 발행되는 김포마루는 김포시의 대표적인 무료 시정 소식지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김포시 스마트 환경에 익숙한 연령대의 인구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김포마루 구독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김포마루 모바일 서비스의 장점은 가독성과 편리함이다. 지면 소식지의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이미지로 구현해 기사의 가독성을 높였다.

정동희/기자



2021 지역사회건강조사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조사기간 2021년 8월 16일(월) ~ 10월 31일(일)
조사대상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여부, 삶의 질 등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1339



경북 동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용인시, 생생한 기업 정보 전달 '강소기업 청년 서포터즈'모집

용인시, 9월13일~11월30일 일 4시간 활동...월80~90만원 내외

용인시는 9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내 강소기업을 취재해 생생하게 전달할 '강소기업 청년 서포터즈' 9명을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알리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은 관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현장의 분위기와 직무 등 취업 정보를 상세 취재해 SNS, 블로그, 홍보물 등으로 전달하게 된다.

9월13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루 4시간씩 활동하며,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월 80~90만원 내외를 받는다. 4대 보험도 적용된다.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다. 취업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서포터즈 모집 요강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사무장 1명과 서포터즈 8명을 선발하고 9월 8일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취재·전달함으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능있고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안산시, 저소득층 학원비 감면 '착한학원' 현판 수여

안산시-안산시 학원연합회, 협약 새로 맺고 학원 34개소 참여키로

안산시가 학원연합회와 손잡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원비를 감면해주는 '안산! 희망스터디' 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6일 '안산! 희망스터디' 사업에 참여하는 학원 34개소를 '착한학원'으로 선정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강관수 안산시 학원연합회장을 비롯한 3개 학원장이 참석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비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착한학원으로 선정된 학원이 자율적으로 감면액을 결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기준으로 110여명의 학생이 학원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수혜 학생은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 안산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산시 학원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학원 83개소의 참여로 시



작됐으나, 2019년 말 협약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참여 학원이 대폭 줄어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 학원연합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배움은 계속 돼야한다'는 의지로 지난달 29일 시와 협약을 다시 체결, 학원 34개소가 참여하며 재차 추진하게 됐다.

강관수 회장은 "저소득 학생들

에게도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부천시, 참신하고 특독튀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부천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2021년 하반기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부천시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시민은 '부천시 발전을 위한 시정 전 분야'이며, 공무원은 '행정·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이다.

시는 제안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에게 총 460만 원(시민 230만 원, 공무원 23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포상한다. 세부적으로는 △1등(1명) 70만원 △2등(1명) 50만원 △3등(2명) 30만원 △노력상(3명) 10만원 △참여상(4명) 5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국민신문고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모제안방에서 모할 수 있고,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와 함께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영승 기획조정실장은 "부천시 업무 전반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행정혁신과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한다"며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고양시 소셜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고양시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 간 제4기 고양시 소셜기자단을 대상으로 SNS 교육 및 기자단 간 소통을 위한 '제4기 고양시 소셜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 진행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하여 기자단이 원하는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짚어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전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었던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디자인 툴 사용요령'(32%)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SNS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교육을, 기자윤리 실천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마련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4일에는 '성인지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정아 대표와 함께 기자단 활동에 있어 기자

윤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5일에는 '디자인으로 퀄리티를 높이는 블로그·유튜브 운영법'을 주제로 현한수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현한수 강사는 디자인 툴을 활용한 SNS 콘텐츠 제작 실습을 진행하고, 효과적인 채널 운영 방법을 교육했다.

제4기 소셜기자단 활동은 내년 4월까지 지속운영 될 예정이다. 5월

부터 시작된 제4기 기자단 활동으로 고양시 공식 블로그 조회수는 월 평균 20만을 상회하며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시는 성 평등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홍보물 지침서를 제작하고, 이를 기자단에게 배포 할 계획이며, 향후 기자단이 제작한 홍보물에 대해서도 고양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위해 산하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는 8월 9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지속가능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 10개 산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산하기관은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성남시여성비전센터,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하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사업 자문 및 컨설팅 협력 △일자리창출 확대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방안 모색 △사업추진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기능별, 역할별 협업·연계·매칭사업 추진 △거점 기반시설 등의 조성·활용 및 운영관리 협력 △지역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하기관 간 연계, 매칭, 상생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기추진 지역과 산성대로, 단대논골 지역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지역 외 도시재생 신규 사업방식의 일환인 인정사업, 혁신지구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ENERGY DAY' 김천상무, 경남전 전 관중 에너지브 증정!

김천상무가 경남FC와 홈경기에서 전 관중에게 에너지브(피로회복 에너지 음료)를 증정한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배낙호)이 8일 오후 8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1' 24R 경남FC와 홈경기를 치른다. 8월 8일 팔팔하게 응원할 수 있도록 김천은 홈경기에서 전 관중에게 에너지브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 무더위 날릴 에너지브-한정판 부채 증정! 무더위 해소를 위해 김천상무는 전 관중을 대상으로 피로회복 에너지 음료인 동서웰빙 에너지브와 응원용 클래퍼를 증정한다. 또한 선착순 500명에게 입장 시 한정판 부채를 제공한다.

동문 앞(가변석 A, B 사이)에서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 종료 이후까지 포토 판넬과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직관인증 이벤트 존에서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직관인증이벤트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에너지브 DAY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면 3명을 선정해 강정목 친필사인 폴라로이드 사진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김천상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하프타임에는 전광판을 활용한 '맛해보슈용' 이벤트를 실시한다. 유인수, 하창래가 출연해 하프라인에서 골 넣기 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선수단 이미지 문제, 후원의 집 관련 영상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정답자에게는 2021 시즌 사인볼을 증정한다.

동서웰빙과 함께하는 첫 골의 주인공 맞이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천상무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경기 시작 전까지 댓글을 남기면 당첨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블루베리 즙을 증정한다.

□ 각각각색 경품, 내 손에 내 품에! 후반전 팬들에게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고씨공방에서 제공하는 미니장구, 경북여성예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천연 디퓨저, 눈사람 안경 렌즈베리 김천점 선글라스 할인권, 김천방짜유기 티스푼·포크세트, 김천 풋살 경기장 풋살장 대관 이용권, 꽃을 담은 공방, 우각 한우촌, 우천냉면, 오단이 꼬마김밥 신음점, 우미관, 파스타바나타, 어사출또 신음점, 왕언니 보리밥, 정원 능이백숙 누룽지백숙 본점 식사권, 붓도랑 추



어탕 식사권, CU 황산로점 상품권, 텃밭에 커피 커피 교환권, 똑방 커피&디저트 커피 교환권, 엔제리너스 김천부곡점 스무디교환권, 파리바게뜨 김천예술회관점 퐁케의 교환권, 김호중 앨범 CD까지. 다양한 경품을 후반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김세기기자

대구소방,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경연대회 참가하세요

8월 31일까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퀴즈 앱 통해 신청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고의 소방안전 전문가 발굴을 위한 '제4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소방과학과 기술의 저변 확대를 통한 예방 기능 강화와 화재예방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개최한다.

참가부문은 정부와 민간분야로 나뉘며 참가 자격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특급·1~3급 소

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일반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분야별 우수 인력을 선발한다.

경연은 9월 모바일 예선(1~3회)을 거쳐 결선(10월 예정)으로 진행되며 선발된 18명에 대해 5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총 1,1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고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퀴즈 앱(맹기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궁영기자

제4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경연대회

참가 신청 기간: 2021. 7. 23.(금) ~ 2021. 8. 31.(화)

대회 일정: 9월 1일(수) ~ 10월 19일(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주5일)

교육기간: 9월 1일(수) ~ 10월 19일(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주5일)

교육시간: 9:00 ~ 13:00

교육장소: 영천제일직업전문학교(경상북도 영천시 원성로 73 피크랜드 2층)

문의처: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053-253-4182) / 영천시청 일자리센터(054-330-6672)

*편의 차편은 영천시 홈페이지 내 확인 가능

주최: 영천시 | 주관: KMA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영천시,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지킴이 '영천 살피미 앱' 운영

장시간 휴대폰 사용 없으면 구호 문자 자동 전송



영천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상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영천 살피미 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천 살피미 앱은 경남 합천군에서 개발된 앱을 활용하여 지정 시간 동안 화면 터치나 버튼 조작 등 휴

폰 사용이 없을 경우 위험신호가 감지되어 미리 등록해 놓은 3명의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가 자동 전송되면 즉시 안전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연계한다.

설치대상은 1인 중장년 위기가구

공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취약계층 354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1인 단독가구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영천 살피미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홀로 지내는 취약가구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천 살피미 앱을 통해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7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58명 등으로 위기발굴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인적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하절기 집중 발굴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영천시, 맞춤형 실무중심 물류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고용노동부 영천시 지원 **국비 무료 교육**

맞춤형 실무중심물류전문인력 양성기정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2021. 7. 19 (월) ~ 2021. 8. 31 (화)

교육강좌: 사무관리(아래한글, 엑셀), ERP물류관리 + 지게차 면허(3톤미만)

교육대상: 1. 취업준비생, 2. 실업자, 3. 취업희망자, 4. 취업준비생, 5. 실업자, 6. 취업희망자

교육기간: 9월 1일(수) ~ 10월 19일(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주5일)

교육시간: 9:00 ~ 13:00

교육장소: 영천제일직업전문학교(경상북도 영천시 원성로 73 피크랜드 2층)

문의처: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053-253-4182) / 영천시청 일자리센터(054-330-6672)

*편의 차편은 영천시 홈페이지 내 확인 가능

주최: 영천시 | 주관: KMA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영천시는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훈련 과정을 구성하여 '맞춤형 실무중심 물류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30명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지역 내 주소지를 둔 지역 미취업자이며 교육장소는 영천제일직업전문학교(완산동 73)다. 다음달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월~금주 5회 수업이 이뤄진다. 수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이 교육과정은 사무관리+ERP물류관리 이론 교육과 지게차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원하는 이는 오는 31일까지 영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또는 영천제일직업전문학교에서 현장 제출하면 된다.

교육생은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교육비는 무료,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연결, 취업 알선 등 취업연계는 물론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자의 취업 성공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영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상생문화' 만들기

반려인의 매너로 안전하고 행복한 핏문화 조성

경북 영주시는 이달부터 반려견 산책이 잦아 하천 변, 공원, 산책로 등에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미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나선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개물림사고로 주민안전에 위협 받고 있어 동물안전관리를 준수하도록 집중홍보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가진 견주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더서 테리어 △스태퍼더서 블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에 대해서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 반려견 등록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기간 내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나 관내 8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준 축산과장은 "반려견의 목줄과 인식표 착용, 맹견 입마개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인식표를 꼭 착용해주세요!

반려견 머물다 간 자리, 배변처리도 잊지 마세요!

맹견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

반려견도 가족입니다.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울릉군,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시작

독도 인근 재난사고 예방과 독도 영토수호의지 고취 기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8월 6일부터 독도 인근 재난사고 대응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영상 송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어 독도에 CCTV와 전용무선망을 구축하여 독도와 독도 근해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독도 실시간 영상을 대국민 스트리밍하여 국민들의 영토 수호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추진되었다.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으로 송출될 영상은 기존 KBS에서 제공하는 독도 실시간 영상과는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독도 서도지역만을 보여주는 KBS의 영상과 달리 동도 지역도 함께 대국민 스트리밍 서비스



를 제공한다. 그간 독도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장시간 여객선을 탑승함에도 불구하고 입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입도 시에도 체류시간이 짧아 관람객들이 독도 경관을 충분히 감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입장원 소장은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통해 송출 될 독도 실시간 영상이

독도 입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다소 보탬이 될 것이며 또한 각종 재해 대비방송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에서 송출하는 영상은 울릉군청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청 K-독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기현기자

부산시 동래구 캐릭터, 뚜기·뚜미 살아 숨쉬다...

부산 동래구는 1999년에 제작된 캐릭터 '뚜기·뚜미'를 주민들에게 더욱더 생동감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 20여 년 만에 개선, 입체화(3D)했다고 6일 밝혔다.

뚜기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인 동래야류 말뚝이탈을 형상화하여 만든 동래구 대표 캐릭터로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2020 대한민국 지역·공공 캐릭터 대상'에서 우수상(지역 부문 3위)을 받은 바 있다.

구는 제작된 지 20여 년이 된 뚜기·뚜미를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친근하고 입체적이며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 제작했다. 3D로 제작된 뚜기·뚜미 캐릭터는 변화된 트렌드에 대응해 앞으로 유튜브, 홈페이지, SNS, 포스터, 리플릿 등에서 구 홍보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뚜기와 뚜미가 변화된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남광영기자

부산 동래구는 1999년에 제작된 캐릭터 '뚜기·뚜미'를 주민들에게 더욱더 생동감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 20여 년 만에 개선, 입체화(3D)했다고 6일 밝혔다.

뚜기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인 동래야류 말뚝이탈을 형상화하여 만든 동래구 대표 캐릭터로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2020 대한민국 지역·공공 캐릭터 대상'에서 우수상(지역 부문 3위)을 받은 바 있다.

구는 제작된 지 20여 년이 된 뚜기·뚜미를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친근하고 입체적이며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 제작했다. 3D로 제작된 뚜기·뚜미 캐릭터는 변화된 트렌드에 대응해 앞으로 유튜브, 홈페이지, SNS, 포스터, 리플릿 등에서 구 홍보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뚜기와 뚜미가 변화된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남광영기자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짚라인 운영재개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에 따라 8월 10일부터 모노레일 탑승 4인 제한 운영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운영을 일시 중지했던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짚라인이 오는 8월 10일부터 운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8월 6일 함양군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8월 10일부터 그간 운영 중단에 들어갔던 대봉스카이랜드 모노레일·짚라인의 가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3단계 운영 방침에 따라 모노레일 탑승인원을 4인으로 50% 제한하고 방문객 응접에 따른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티켓 발매와 탑승 시간도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3단계 거리두기 및

시설 운영 방침을 공식 홈페이지와 예매사이트(인터파크)에 공지하고 운영 재개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신속히 재 정비 중이다.

군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시설 운영과 중단이 반복되어 혼란스런 상황이지만 이번 때 일수록 더욱 철저한 안전 점검 강화를 통해 이용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대봉산휴양밸리는 운영이 중단된 지난 일주일여 기간 동안 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실전 같은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외부 승강기 시설을 추가 가동하고 모노레일 선로와 짚라인 와이어를 재점검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살피는 등 휴양밸리 재개장을 위한 시설물 점검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용기자



통영나전칠기에 반해 통영을 찾은 주한 카타르대사!

통영시는 지난 8. 3.~8. 5. 2박3일 간의 여정으로 주한 카타르 대사(모하메드 아흐메드 모하메드 핫산 알하이키)가 통영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대사가 통영을 방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나전칠기였다. 그는 나전 중에서도 통영나전칠기를 으뜸으로 여기는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자개와 양질의 옷질, 400년 전통기술을 이어온 장인의 기술로 품을 만끽 이미 나전칠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통영나전칠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하였다.

2박 3일의 여정으로 케이בל카, 동피랑, 디피랑, 중앙전통시장, 옷질미술관, 통영전통공예관, 통영시립박물관, 통영나전칠기공방 등을 두루 둘러보았다.

특히, 통영옷질미술관(관장 김성수)에 들러, 보고 싶어 했던 고 송방을 나전장의 유작을 둘러보고 옷질 회화의 세밀함과 아름다움에 감탄과

경이로움을 표하였으며, 이에 김성수 관장은 문화를 통한 외교의 중요성과 문화 수출을 강조하였다.

통영나전칠기공방을 찾은 주한 카타르 대사는 경상남도 최고장인 박재성 선생과 함께 나전 불이기를 직접 체험해 보며 정교한 기술에 다시 한 번 감탄 하였으며, "이렇게 작은 공방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작품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통영은 작은 도시지만 인구대비 걸출한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더불어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감상하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주한 카타르 대사는 "통영은 너무 아름다운 도시이다. 사흘이 너무 짧아 이 주일은 머물고 싶을 정도이다"고 화답하였다.

강영훈기자



최광용기자

하동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자립·자활 적립금 지원...8월 19일까지 신청자 모집

하동군은 관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 I 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원·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 수급 시 최대 2757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 II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원·10만원·2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대1) 및 내일키움장려금(1대1, 1대0.5),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을 합친 최대 2340만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한 후 탈수급,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또는 대학교 입·복학 등이 지원조건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39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의 45%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2만 3000원), 생계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한 경우 최대 2314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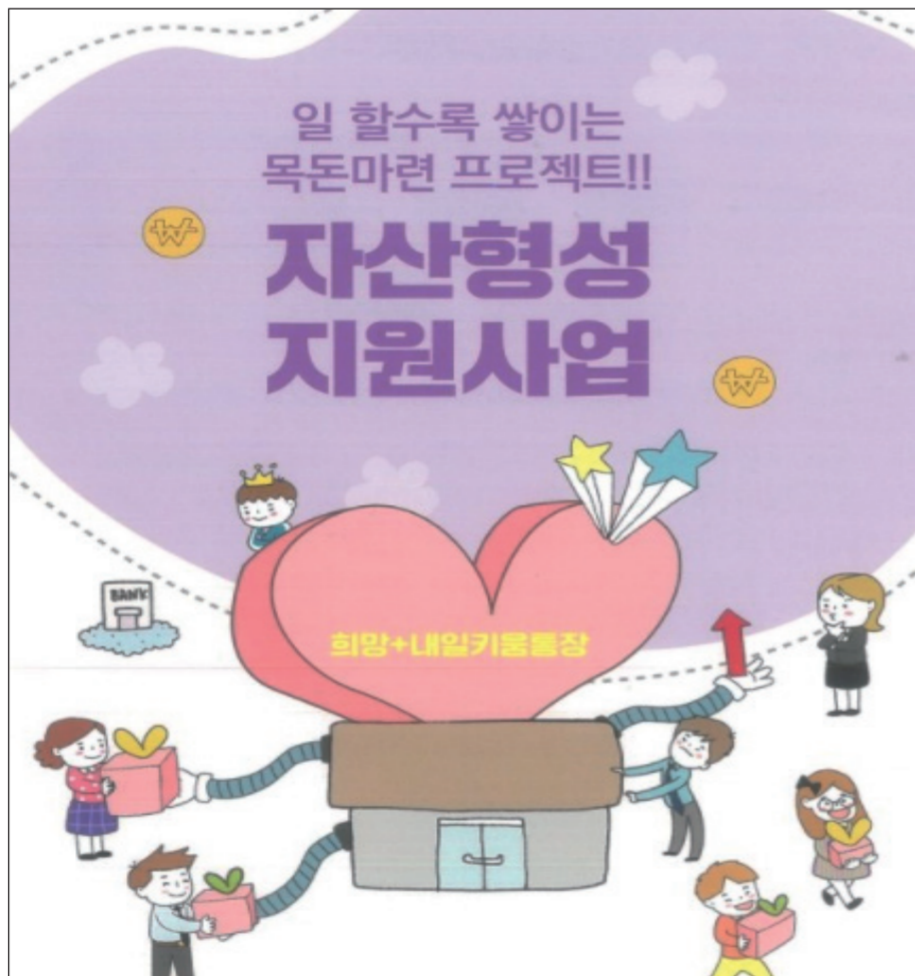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3배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해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신청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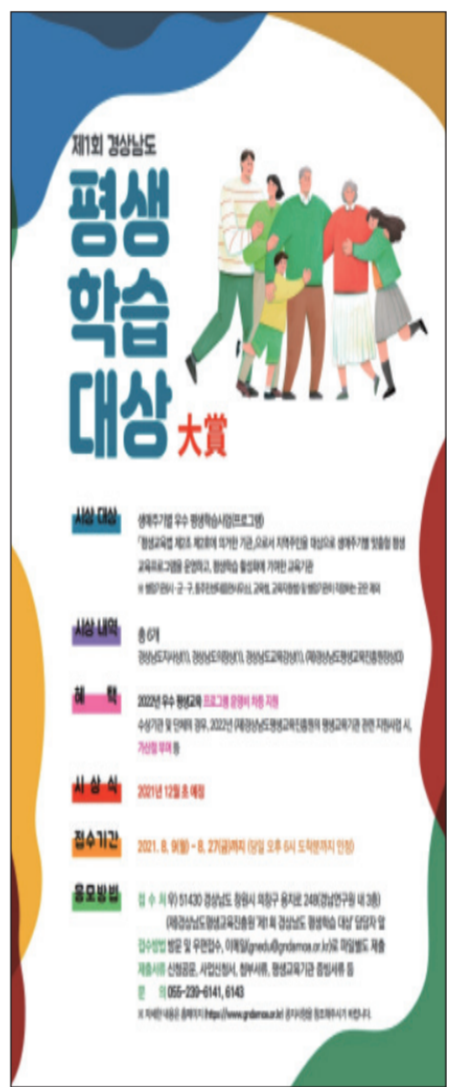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택 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부서나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경상남도, 2021년 제1회 경상남도평생학습대상 공모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8월 9일부터 27일까지 2021년 제1회 경상남도평생학습대상을 공모한다.

"경상남도평생학습대상"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평생교육 각 분야의 대표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경상남도의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상이다.

공모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수행한 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설립한 기관이다.

행정기관(시·군·구,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행정기관이 직영하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상에는 경상남도지사상 1개, 경상남도의지사상 1개, 경상남도교육감상 1개,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상 3개로 총 6개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한 기관의 특전은 2022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5백만원에서 최대 천백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기관 대상 관련 공모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수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홍보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장은 "경상남도평생학습대상은 경남 평생교육의 양적·질적 우수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경남 평생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1회 경상남도평생학습대상 공모에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고성군, 2021 경남 고성군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

고성군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숨은 관광지 및 새로운 관광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2021 경남 고성군 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을 개최한다.

고성군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한국사진작가협회 고성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고성9경, 관광지, 축제, 고성의 사계절 자연경관 등을 공모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1x14인치 인화된 칼라사진(최소 3,500 픽셀이상) 1인당 최대 4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1인 2만 원의 출품료가 있다.

방문 및 우편(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리로 163-1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성지부)으로 접수 가능하다.

작품 총 66점, 상금 1,4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금상 1명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심사 및 발표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당선작은 시상식과 더불어 고성 박물관 전시관에 전시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성 관광자원이 널리 홍보되고, 고성에 숨겨진 관광명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올림픽 최초 3관왕 양궁 안산 선수, 강진 방문

강진군은 6일 오전 양궁 국가대표 안산(20, 광주여대) 선수가 아버지 안경우씨, 어머니 구명순씨, 김정은 감독과 아버지의 고향인 강진을 방문해 군민들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영 행사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이승욱 강진군수와 군 체육회 관계자, 작은 할아버지 안종개님 등 남포마을 주민 최소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안산 선수의 이력 소개를 시작으로 꽃다발 및 기념품 전달식, 환영사, 선수 인사말, 기념촬영, 핸드프린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 촬영 중에 안산 선수가 메달을 가족들과 이승욱 군수, 위성식 의장 등에 직접 걸어주는 깜짝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안산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양궁을 시작해 광주체육고 2학년년부터

서 태어났다.

안산 선수는 “어릴적 아버지와 함께 왔던 강진을 생각했는데 변한 모습을 보니 낯설기도하고 신기하다. 아버지의 고향 강진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 고맙고 기쁘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더 많은 군민들이 나와 축하해줬을텐데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아쉽다.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최초 3관왕이란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훈련과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을 것”이라며 “강진군민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3년 후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순창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 자금 융자지원

순창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내인 전업농으로 비 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의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 ▲ 농업계 학교 출신자 ▲ 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으로서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나 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은 모두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선수/기자



장성군 '지역 명물' 된 황룡강 은행나무, 적극행정 우수 사례!

우수사례 4건 선정... '1상가 1화분 가꾸기' 중점 과제로 관리

장성군이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 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총 4건으로 ▲민폐 끼치던 은행나무! 발상의 전환으로 황룡강 명물로 재탄생 ▲방치된 땅을 향기나는 꽃밭으로! 시민정원사 육성 및 게릴라정원 조성 ▲황룡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차장과 소통공원' 조성, '경관 개선'의 세 마리 토끼를 잡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이다.



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 1상가 1화분 가꾸기 추진'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고 향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실적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6명의 직원에게 내년도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와 포상휴가 혜택을 제공해 적극행정 동기부여 및 정착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리 군은 장

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장성공원 봉고위험지 경관복조 조성 등 손꼽히는 적극행정 추진사례가 아주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7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가위손 해결사, 전국 최초 민간 과수전정단' 사례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오홍곤/기자

여수시, 첨단장비 활용 '산단 대기환경 개선 나선다'

여수시가 환경부의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첨단장비를 활용해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 개선 및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금년 6월 말 국비 3억 7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들여 차량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100여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및 대기 중의 악취 측정이 가능한 드론 측정장비, 석유화학단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환경감시를 위한 방폭기능이 탑재된 광학가스탐지기(OGI)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구입했다.

금년 9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삼일자원비축산단, 화양농공단지 등의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산업단지 대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환경기술 지원 및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고질적 불법 관협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시에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15개소,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4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2개소 등 총 2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했다.

시 관계자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관리와 함께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등을 병행한 산업단지 대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국가산단은 지속적인 악취민원 발생으로 2019년 삼일자원비축산단과 함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해당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와 더불어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양농공단지지는 2013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기 지정된 바 있다.

이남철/기자

목포시, 코로나 안심콜 다중이용시설 확대 지원

8월 초까지 7,316개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목포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로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청정지역이었으나, 장기화되면서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고,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방문자 증가와 델타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8월초까지 유형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 PC방,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316개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각 업소별로 안심콜 고유번호와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현재 안심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기존 번호를 해지하고, 시에서 지정·통보한 신규 안심콜 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시는 안심콜 사용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해 사

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가뜰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 및 외식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방역수칙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업소에서 안심콜 사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안심콜 서비스는 방문자가 업소 지정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통화가 종료되고 출입기록이 자동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출입정보는 방문일로부터 4주간 보관된 후 자동 폐기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확진자 및 접촉자 동선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용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콜을 설치했다라도 이용객이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영업주께서 해당 업소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빠짐없이 안심콜을 이용해 방문 등록하도록 철저히 안내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안심콜 한통으로 OK! 코로나19 출입자 명단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080 - -

1. 통화료는 목포시에서 부담하며 자동응답 멘트 후 종료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4주 후 자동폐기 됩니다.

여름의 귀족 과일 '무화과' 해남에서 수확 한창

해남군 특화작목인 시설 무화과가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

관내 40여농가, 20ha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해남 무화과는 시설하우스 재배로 수확시기가 노지재배에 비해 1개월 이상 빠르다.

특히 해남에서 생산되는 시설 무화과는 최신 하우스 시설에 상자를 이용한 수확재배를 통해 외관이 깨끗하고, 높은 당도와 치밀한 조직으로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무화과연구회 전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땅끝무화과주식회사를 설립, 공동작업을 통해 당도와 무게 등 규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도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해남 시설무화과는 7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생산되며, 연간 300여톤을 생산, 15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수확된 무화과는 농가 직거래 및 해남미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비

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생과뿐만 아니라 무화과 잼, 즙으로도 가공해 판매한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어 '여왕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는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 항암효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풍부한 섬유질과 단백질 분해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불량과 노화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식물성 콜레스테롤과 칼륨이 풍부해 혈관을 막는 노폐물을 제거하며, 고혈압과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해남군은 무화과 재배농가의 하우스 시설개보수사업, 양액시설, 관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무화과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땅끝무화과연구회 박종희씨(송지면, 68세)는 “올해는 1월에 찾아온 역대 최강 한파와 7월 집중호우로 생산량은 다소 감소했지만 소비자 인

기가 좋아 농가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시설하우스에서 깨끗하게 재배된 해남무화과는 노지무화과에 비해 품질이 매우 뛰어나 해남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영물/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여름 철지항재배관리 철저 당부

국지성 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병해충 방제 등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여름철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고온 다습한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배수로 정비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다.

지황은 쌍화탕과 경옥고, 심전대보탕 등 다양한 한약 처방과 건강기능식품의 주재료로 이용되고 있어 국내에서는 꾸준히 소비되는 약용작물이다. 정읍 지황은 예부터 약효가 뛰어나 1992년 주산단지 지정되었으며 2015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그 명성과 품질을 이어가고 있다.

지황은 뿌리껍질이 얇아 습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토양수분이 과다하면 호흡장애로 뿌리가 썩는 피해가 증가한다.

특히 7~8월 고온기에 과습 또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단시일 내에 대부분 지상부가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밭 주변에 도랑을 쳐 재배포장의 지하수위를 낮춰줘야 한다.

또한 폭염과 잦은 소나기로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계속되면 지황에 피해를 주는 파밤나방이 발생할 수 있다.

파밤나방은 수많은 작물의 잎과 과실을 가해하는 광식성 해충으로 보통 성충은 5월부터 나타나고 피해는 8~10월에 많이 발생하는 데 심할 경우 엽맥만 남게 된다.

어린 벌레 단계에서 약제 효과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유충 발견 시 등록 농약을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줘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황 뿌리 썩음병과 병해충 피해는 주로 여름철에 발생해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배수로 정비와 초기 병해충 방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하은/기자



김제시, 고온 및 폭염으로 과수농가 사전예방 당부

김제시는 농업기술센터는 지속되는 31℃ 이상의 고온과 폭염으로 과실에 일소(햇볕태인)피해 최소화할 위한 몇가지 실천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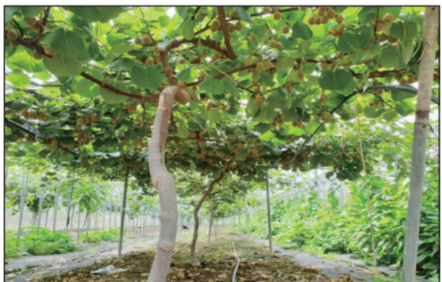
일소피해는 고온을 동반한 강한 햇볕에 과실표면에 데이는 현상으로, 초기에는 표면이 흰색 또는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이후 세포조직이 심하게 갈변한다. 2차 피해로는 탄저병 등의 병원균에 감염되어 주변 과실로 피해에 확대된다.

과원에 토양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물 주는 시간을 짧게 자주 주고 옷자란 나뭇가지(도장지) 등을 이용해 강한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유인하고 풀을 가꾸는 초생재배로 토양 복사열을 낮추며 미세 살수장치나 가림막 설치로 과원 내

온도를 낮추고 이와 함께, 탄산칼슘(50배)과 카올린(50배) 약제를 엽면 살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자는 "농가는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이 소득을 올리는 최선의 길이며 관계 공무원은 시기별로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홍보 및 현장 컨설팅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완주군, 공동체문화도시사업 첫해부터 '활기' 관심 집중

올해 30억 투입해 19개 사업 본 궤도...사업 전반 상설운영체제로 전환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완주군의 '공동체 문화도시' 사업이 활기를 띠며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문화부의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비 99억 원을 포함한 도비와 지방비 등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완주군은 첫해인 올해 문화도시사업의 기초체계를 확산하고 활성화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자치 생태계 실현을 위한 기초모형 제도화와 실험적 사업 추진, 문화자원 공유 인프라 구축 확대와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문화창의 인력을 양성하는 완주 컬처메이커즈의 기반을 구축해 전문인력을 상설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며, 사회적 자본연대를 위한 연계협력 강화에 나간다는 복안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6개 사업에 3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주민주도 참여사업 19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문화 영역의 사회적 공론의 장을 구성하고 의견수렴 통로의 제도화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상 주민의 공론장인 '대표 없는 회의'는 지난 6월 말까지 총 93회 진행해 3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년 대비사업 대비 110%의 늘어난 신청률을 기록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 전문가 협력포럼인 '월간 문화도시'는 그동안 30여 명이 참여하는 3회 개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지역현황과 주민실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현재 19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문화배심원단'은 그동안 30여 명이 참여해 5회 심사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문화공동체와 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문윤걸)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문화도시 사업 전반을 상설운영 체제로 전환해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특정 공모 시기를 없

애고 매월 또는 온라인 상설신청을 통해 공동체 문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소규모 일상 공론장인 '대표 없는 회의'와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밋업인(Meet Up in) 완주' 등 군민 개인으로 참여가 가능한 사업부터 공동체들이 모인 네트워크 지원까지 누구라도 언제든지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거점 문화공유공간인 '다:행@상례' 조성 사업은 커뮤니티 공간 2곳과 영상제작실, 공유주방 등을 들여놓고 공동체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 2차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가 완료돼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문화적 경험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문화도시 확산과 성과공유 연계사업'도 탄력적인 궤도에 올랐다. 현재 봉동과 상관 등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참여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완주군은 우석대(올 4월), 우석대 교양교육지원센터(올 5월), 오산시(올 6월)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완주군 청년마을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 활용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기회를 창출해 지역역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완주 문화도시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완주 컬처메이커 사관학교' 역시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호흡 조절에 나선 상태다. 앞으로 컬처반과 메이커반 등 총 교육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완주군 도시재생사업과 우석대와 연계한 교육이 진행되는 등 완주군민의 문화 분야 인력양성 사업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원데이 클래스를 기획하는 '재능공유 클럽모두다 클래스'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85회를 진행, 36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을 곳곳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는 문화활동을 진행하는 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이 없어 호응도가 아주 높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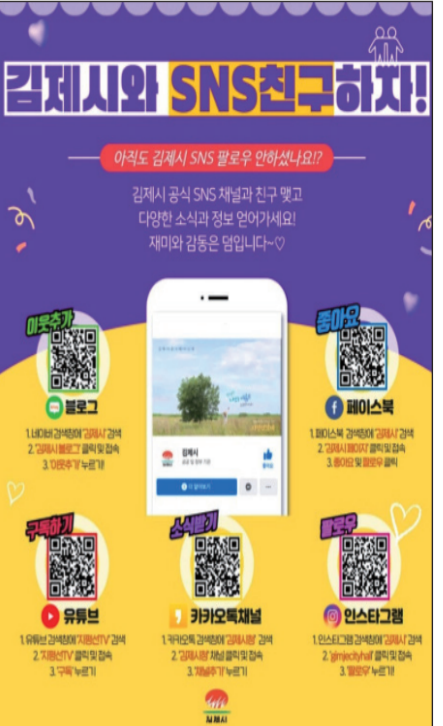
완주군의 문화도시 사업 추진이 큰 성과를 거두자 목포시와 순천시, 수원시, 오산시, 서울영등포구 등 국내 10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으며, 부산영도구와 군포시 등 11개 기초단체는 완주군 문화도시 지정 과정과 주요사업을 관련 센터장을 초청해 특강을 청취하기도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완주군 문화도시 사업은 주민이 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자이자 주체로 나서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문화를 만들고 나누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공동체문화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라며 "주민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장을 반영한 지역문화 정책 형성과 칸막이 행정 혁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김제시, QR코드 활용해 적극 시정 홍보



김제시는 시정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 가입을 홍보하고 가입자를 늘리는 등 시 공식 SNS 채널을 활성화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채널별로 생성한 QR코드 파일철을 제작하여 SNS 접근이 어렵거나 생소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읍면동 등 민원 창구에 QR코드를 비치하여 대기시간을 활용해 채널 가입 등에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희망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시청 방문객들에게는 구독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원하는 경우 가입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용자가 많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여행, 생활정보 등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기획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여 제공하겠다고 한다.

시는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정정보와 연계한 다양한 SNS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SNS 릴레이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회에 가입하고 이벤트에 선정되면 시원한 음료 모바일 쿠폰도 받을 수 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은 "SNS 채널 활성화를 통해 시정소식, 코로나 19 상황 등을 빠르게 전달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SNS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통해서 SNS 등을 활용한 소통의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추진)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철원 고석정 꽃밭 9월 재개장 준비 순조

해바라기 등 꽃묘 식재 쪽배 돛단배 모형 포토존 설치 등 볼거리 다채

철원 고석정 꽃밭이 9월 재개장을 앞두고 꽃묘 식재를 97% 완료하는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월 철원군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코로나19에 따른 군민안전을 위해 단계별 방역수칙과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고석정 꽃밭이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군은 해바라기 등 18종의 꽃묘를 식재했으며, 쪽배(돛단배)모형 외에도 물레방아 등 다채로운 포토존도 설치했다. 향후 채송화, 코스모스, 국화, 메밀, 등을 추가로 파종 식재하여 가을에 시골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석정 꽃밭은 동송읍 장흥리 10-2번지 일원으로 유희부지였던 곳을 2016년부터 꽃밭으로 조성해 왔다. 유채, 장미, 코스모스, 코키아,

천일홍, 백일홍 등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19년에는 30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정도로 철원의 대표 관광명소가 됐다.

철원군은 오는 10월 한탄강 협곡을 수월하게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잔도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고석정 꽃밭, 은하수고, 한탄강 물윗길 행사와 함께 철원군을 대내·적으로 알리는 시너지효과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다음달에는 백일홍과 천일홍,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 모두에게 힐링과 휴식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공주시, 스마트백제 조성 위한 '리빙랩 시민참여단' 모집

공주시는 공주와 부여 일원에 도입될 '스마트 챌린지' 구축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백제 리빙랩은 시민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찾고 스마트 기술 등 새로운 해결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혁신 모델이다.

시민참여단은 그동안 진행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의 연장으로 실제 도입을 위한 보완 및 검증 단계에 참여해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집인원은 기존 리빙랩 참여자 10명에 더해 신규 공개모집을 통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으로, 활동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이다.

지원 자격은 스마트백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공주·부여 주민, 학생,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스마트백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백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주시부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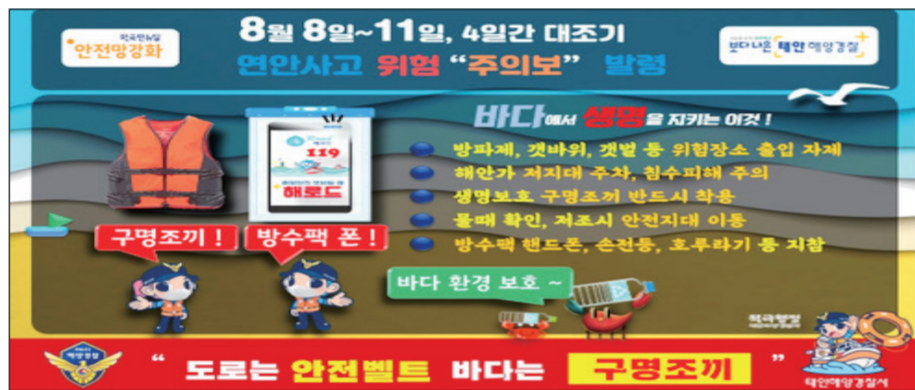
윤석봉 도시정책과장은 “스마트·백제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관광환경과 스마트 관광,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성공적인 스마트타운 챌린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에 선정된 공주·부여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대에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김원호/기자

태안해경, 8월 휴가철 대조기(大潮期)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구명조끼 등 필수 보호장구 착용, 물때 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장현)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바닷가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연안 사고는 모두 53건 109명으로 이 가운데 고립 27건 62명, 익수 10건 12명, 사망 3명 등 대부분이 서해 물때와 위험장소 특성을 모르거나 개별안전수칙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여름휴가철 전국 각지에서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 증

가 시기와 맞물려 이번 대조기(사리기간)에는 각종 연안안전사고 집중 발생 우려로 위험 주의보 발령과 함께 주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비롯해 취약지 순찰강화, 지자체 대형 전광판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활용 홍보활동 등 연안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정화/기자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사로 나선다!

천안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민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 집에 머무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내 층간소음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층간소음 민원의 근본적 원인을 '이웃 간 소통의 부재'로 보고, 시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치기구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관리위원회의 운영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및 지원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내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웃 간 '마음소통'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파트 출입구에 '다음소통 게시판(가정)'을 운영토록 안내해 이웃 간 평소 말하기 어려웠던 사항을 손편지 등으로 써서 전달하는 방안 도입 등으로 입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한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입주민간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증재상당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교육 시 층간소음 관리 가이드북과 층간소음 갈등해결 안내서 등을 배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방지 우수사례와 층간소음 예방 홍보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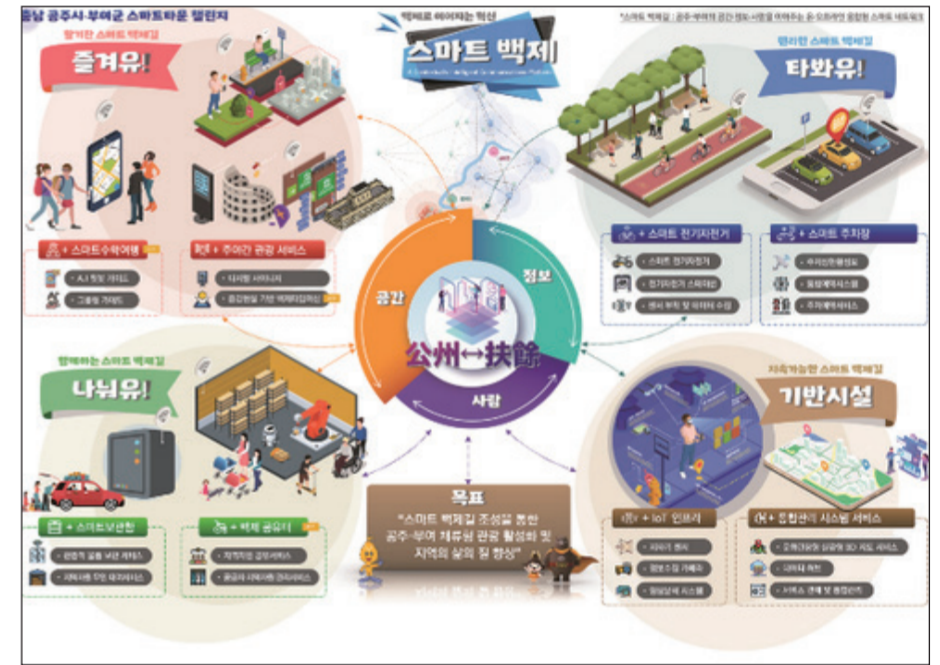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인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이밖에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정위원회 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타 기관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적극 활용토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세부사항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층간소음 문제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라이프로그 디지털헬스 빅데이터 아카데미 교육 실시

원주시는 8월 20일까지 「라이프로그 디지털헬스 빅데이터 아카데미」 1기 교육생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는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교육과정은 '디지털헬스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빅데이터 엔지니어 과정' 및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와 심화로 구분되어 있어 목적 및 수준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210명으로 과정별 선착순 접수이며, 강원도민, 강원도 소재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강원도 소재 직장 재직자·사업자 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분야별 최정수강 강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 100시간 전 과정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강료(10만 원)는 80% 이상 교육 이수 시 전액 환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라이프로그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영동소방서 119구급대원 감사합니다' 군민 칭찬이어서

충북소방본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코너에 영동소방서 구급대원 3명에 대한 감사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을 올린 이는 구급 수혜자 보호자 유 모씨로, 유 씨는 지난 7월 16일 16시경 아버지께서 고열로 지남력이 떨어지자 119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소방서 소속 이재현, 이정은, 강성규 119구급대원은 고열환자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며 이송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로 환자 수용 가능한 병실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119구급대원들은 임무분담을 통해 지속적인 환자 체크와 응급

처치를 실시했으며, 환자 수용이 가능한 충북대병원을 찾아 이송했다.

또한 소방서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구급차안에 얼음 등 폭염환자 대응 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있어 이송중에도 고열환자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했다.

당시 출동했던 이재현 대원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소방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의 글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신속하고 친절의 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진천군,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개최

진천군은 6일 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별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를 초청해 관내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청취와 향후 지역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역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지난 2월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농산물유통지원센터(센터장 이성중)와 '지역 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올해 본 예산에 1억 5천만 원의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영양교사는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통한 축산물 공급으로 고기의 품질과 맛이 향상돼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졌으나, 학교급식 식품비가 한정돼 있어 올해와 같이 급격한 축산물 가격상승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식단 작성에 어려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송기섭 군수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교급식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바다에 빠진 심정지 환자 구한 대구 소방관, 휴가 중에도 구조 본능

서구, 올림픽 양궁 금메달 오진혁 선수에 공로패 수여



대구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정영화 대원,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 구해 심폐소생술

지난 2일 포항 흥환해수욕장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던 대구의 한 소방관이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을 구해 10분간의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정영화 소방교(90년생)는 지난 2일 가족과 함께 포항 흥환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정 소방교는 이날 오후 1시경 해변 채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곧장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물 밖으로 신속하게 구조했지만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구급차 도착 전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119종합상황실 요원과 소통하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40대 남성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세명기독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회복 치료 중이다. 환자 가족들은 "정 소방교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정 소방교는 2016년 6월 대구소방에 임용돼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사와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화 대원은 "구조대원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그분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인천 서구는 6일,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서구 주민 오진혁 선수와 소속팀 한승훈 감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진혁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 양궁 개인전 금메달 이후 9년 만에

부상을 입고 다시 올림픽에 도전, 이번 도쿄올림픽 남자양궁 단체전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최고의 플레이로 만행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남자 양궁은 5년 전 리우올림픽에 이어 단체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민에게 무대위 속 단비와도 같은 희망과 기쁨을 안겨줬다.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장 '농협 창립 60주년기념 감사패'수상

NH농협 하남시지부는 8월 6일 시장실에서 농협경기지역본부 정용왕 본부장이 참석하여 농협중앙회 회장을 대신해 김상호 하남시장과 방미숙 하남시의장에게 동행 6060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행6060 감사패는 농협창립 60주년을 맞아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협사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에 크게 기여

한 공로를 인정하여 60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시장과 방미숙 시의장은 "농협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뜻깊은 감사패를 받아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협과 하남시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부산시 수영구 평생친구 펭수, 광안리에서 생일상 받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오는 8월 8일 펭수의 생일을 맞아 광안리 펭수 조형물에 생일상을 차렸다. 광안리 해변 백사장에 설치된 펭수 조형물 6층에 고깔모자를 씌우고 생일상과 생일케익, 축하 메시지 보드, 풍선 등을 장식하여 3일간(8월 6일 ~ 8월 8일) 주말 방문객들에게 깜짝 포토존을 선사한다.

광안리에서 생일상을 받게 된 펭수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반창고를 붙인 채 광안리해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는 등 공익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광안리 x 펭수 프로젝트'는

작년에 이은 수영구와 EBS의 협업 프로젝트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염원하며 기획되었다. 수영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방역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김충남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매월 둘째 화요일, 청년예술단체가 선사하는 '힐링'

광산구 화요문화산책 새 라인업...10일 '영택스' 어쿠스틱 첫 공연

광주 광산구가 올해 하반기 화요 문화산책의 무대를 채울 청년예술단체를 선정, 1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둘째 화요일 시민에게 '힐링'을 선사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영택스의 어쿠스틱 공연 'The Harmonies(더 하모니즈)'가 개최된다. 올해 화요문화산책 여섯 번째 무대이자, 하반기 첫 공연이다.

광주·전남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영택스는 재즈, 팝, 인디,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선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가요, 팝뿐만 아니라 보컬리스트들이 발매한 창작곡을 바탕으로 서정적이고 잔잔한 공연을 펼친다. 보컬리스트들이 직접 피아노, 기타 등 악기 세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음악적 역량을 뽐낼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둘째 화요일 청년예술단체의 공연은 계속된다. 9월에는, R&B 팝밴드 '로든(대표 김양훈)'이 걸으면서 듣기에 좋은 음악으로 구성된 'In da night(인다나잇)', 10월에는 광주 지역 음악학과 동문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더 울림(대표 홍성혁)'의 클래식 공연 '울림 더 메모리'가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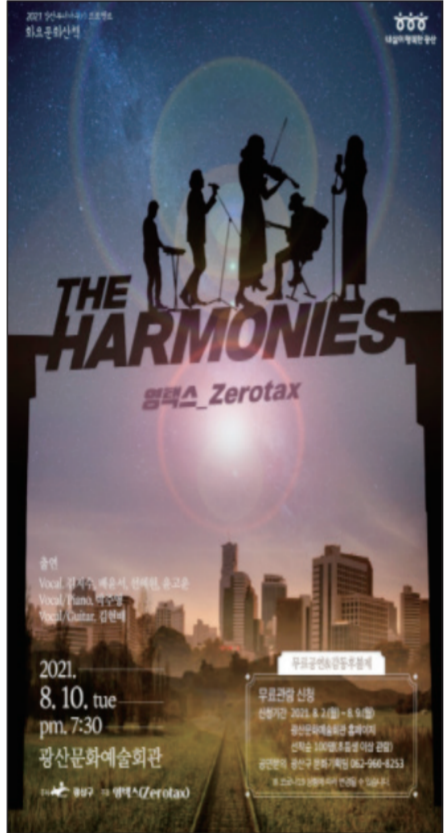
11월에는 'GIM Band(대표 이주윤)'의 재즈로 떠나는 여행 'Flight with Jazz'가, 12월에는 재즈보컬리스트 이다솜, 베이시스트 박한울, 드러머 신지용, 피아니스트 김요한으로 구성된 'Somm Quartet(대표 이다솜)'의 'We wish you a JAZZY Christmas'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다. 광산구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 및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광산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한다. 공연장 출입 시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산구 '화요문화산책'은 청년예술인들의 공연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예술인들에게 공연장 무료 대관, 출연료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덕윤/기자



춘천시립교향악단 패밀리 콘서트 개최

발레로 만나는 클래식 음악의 향연!

온 가족과 함께 공연장에서 즐기는 춘천시립교향악단(지휘 이종진)의 패밀리 콘서트Ⅲ가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춘천시향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선보이고 있는 발레 갈라콘서트! 그 세 번째 순서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프티로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작품 중 하나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발레와 함께 갈라 콘서트로 선보인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유명 동화작가 '샤를 페로(1628 ~ 1703년)'의 동화를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각색한 작품으로 프롤로그와 함께 전체 3막 8장으로 서주와 29개의 곡으로 구성된 장대한 작품이다. 1881년 페테르부르크 황실 마린스키 극장의 감독관인 '이반 우세블로주스키'의 의뢰로 착수되었으며, '백조의 호수' 작품을 작곡한 지 십여 년 만에 발레 작품을 다시 작곡하였고, 1889년 '이반 우세블로주스키'에게 헌정하였고 1890년 1월 황실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이번 연주회에 춘천시향과 함께 할 발레단체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열정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작 발레



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발레단인 서울발레시어터(단장 최진수)가 출연하여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동화 속 이야기 작품을 발레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 티켓 예매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티켓 오픈을 하여 지난 8월 3일(화) 춘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1~2층 오픈한 객석이 전석 매진되었으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춰 공연장 내 객석운행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객 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원/기자

천안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림 전시회 '그날의 기억'

천안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 '그날의 기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을 기념하고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그날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할머니들의 공동 살던 '나눔의 집' 소장 작품 25점을 소개한다.

그림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안부 피해 실태와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자 했던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전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9일 오전 9시 전시회를 관람하며 해설사가 들려주는 그림 이야기를 경청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는 오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6명이 안장된 국립망향의 동산을 찾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추모비와 장미 묘역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날(1991.8.14.)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법률로 제정됐다.

고정화/기자



원폭피해 영령을 위한 76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례 열려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합천원폭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지부장 심진태) 주관으로 제76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례가 진행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중 한국인 피폭자 10만 명의 희생을 기리며, 원폭으로 인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이 날 추모제에는 문준희 합천군수를 비롯하여 배몽희 합천군회의장, 김윤철 경상남도의원, 윤효석 경상남도청 복지정책과장, 원폭피해자협회 임원진 및 하재성 한국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례를 진행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우리 군은 원폭 복지회관과 원폭자료관을 중심으로 원폭 피해를 알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폭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의 치유와 재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추모제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추모식을 생략하고 일반제례만 진행됐다. 합천군은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여 발열여부 및 해외방문이력,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고, 당일 행사장에 방문한 참석자들의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행사 참가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했다.

최광용/기자



무안군, 제24회 무안연꽃축제 온라인 개최

여름철 대표축제인 제24회 무안연꽃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5일간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된다.

무안연꽃축제는 10만여 평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회산백련지에서 무더위를 이기고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무안군은 유튜브 채널(무안연꽃TV)과 축제 홈페이지 등 축제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회산백련지 주무대에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무안중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동생, 향우 등 그리운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무안에서 온(on) 연꽃편지'가 진행될 예정이며, 군대에 입대한 아들, 초등학교 동창생들, 폭염 속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자녀,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등 30팀 7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유튜브로 사연을 전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모두에게 위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김동명, 현진우, 박지은이 출연하는 개막축하 공연과 무안의 대표 농특산품인 연근과 고구마를 활용한 요리를 이원일 셰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배우는 연꽃쿠킹클래스, 아름다운 회산백련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펼쳐지는 달빛음악회, 다산을 상징하는 연꽃의 의미를 살려 예비맘을 대상으로 태교에 좋은 음악과 육아정보를 알려주는 태교음악회, 청소년들을 위한 틴틴페스티벌, 군민 참여로 만드는 연꽃가요제 등이 있다.

또한 한지등 키트를 다채롭게 꾸미고 코로나19 극복과 각자의 소망메시지를 담아보는 백련등 만들기, 폼바 키트를 배송하면 참가자가 옷을 만들어 입고 폼바영상을 따라해 보는 폼



바체험도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군은 회산백련지를 배경으로 유명 요리유튜버 서연(뽕스)의 설명을 들으며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힐링요가 교실, 유튜버 에드머가 구석구석 회산백련지를 소개하고 무안의 대표 먹거리인 낙지 먹방도 선보이며 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다.

축제기간 중에는 라이브커머스도 4회 운영하여 고구마, 양파젓, 잡곡세트 등 무안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판매할 계획이며, 특히 고구마 수확철을 맞아 21일에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이원일 셰프가 직접 쇼호스트로 나서 무안 핫고구마를 이용한 요리법도 알려주고 판매도 할 계획이다.

군은 연꽃축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개설하고 축제개최 전 유튜브 구독과 댓글 이벤트를 운영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무안연꽃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산 군수는 "지난 활동갯벌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무안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며 "이번 연꽃축제는 온라인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우리군 농특산품 판매에도 주력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안/기자

경산시민 1인 1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경산시에서는 지난 2일, 민간자격증 취득 온라인 플랫폼 KBS미디어 평생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산시KBS미디어 평생교육 온라인 무료강좌 운영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무료 서비스된 온라인 미디어 교육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고자 오픈했다.

KBS미디어 평생교육 온라인 무료강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으로 ▲전문가과정(요양지도사, 빅데이터전문가 등) ▲심리과정(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등) ▲방과후과정(토·토론지도사, 방과후지도사 등) ▲아동지도과정(아동미술지도사, 부모교육지도사 등) ▲공예과정(캘리그래피지도사, 펠트공예지도사 등)으로 수업 진행 후 단일 등급 과정 2급→1급 과정으로 심화 단계 자격증까지 가능하다.

경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연결된 KBS미디어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강의 신청과 자격시험은 무료이며 자격증 발급 비용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학습관 교육이 원활하지 않아 매우 아쉬웠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별도의 수강료 없이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시민들이 1인 1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전북도, XR(확장현실)산업 육성 본격 추진

수요-공급 비즈니스 매칭,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 XR엑세서리 개발 지원 등

전북도는 홀로그램,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아우르는 XR(확장현실) 기업을 지원해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6일 전북도는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를 통해 XR기업 간 비즈니스매칭,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화 지원, XR엑세서리 개발지원 등 2021년 XR 수요-공급 비즈니스매칭 및 사업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XR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는 과기부에서 지정받은 XR 소부장 분야 전국 유일 기관으로 실감 콘텐츠 분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센터는 기업 간 연계 지원을 통해 XR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선도 서비스 실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XR 수요-공급 비즈니스매칭 및 사업화지원 사업은 XR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XR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XR기업 간 수요-공급 비즈니스매칭(비예산), XR소재·부품·장비 기업 시제품제작(150백만 원), XR소재·부품·장비 기업 사업화(165백만 원), XR엑세서리 개발(40백만 원)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문가 평가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는 XR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과 XR소재 성능평가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수시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XR(확장현실)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XR 부품·장비의 기술개발과 소재 성능평가,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및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등을 강화해 전북도가 XR(확장현실)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경남도-진주시-아미코젠(주), 경남바이오산업 선도!

경남도-진주시-아미코젠, 6일 아미코젠 문산공장에서 투자협약 체결



기반과 비법(노하우)을 바탕으로 의약품 단백질과 의약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아미코젠은 차세대 단백질 계열의 슈퍼항생제로 불리는 엔돌라이신 생산을 위해 효소 전문 기술을 이용한 엔돌라이신 고생산법 개발에 성공했으며, 향후 건립될 생산공

장 또한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충족해 경남도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 전략지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앞으로 아미코젠의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바이오제약용 신소재 관련 연구인력 고용과 관련하여 약 165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는

지역의 우수 인재 확보와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협약에 따라 아미코젠의 투자와 고용이 신속·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상호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아미코젠이 바이오분야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기대한다"라면서, "도내 바이오산업이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자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는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핵심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2021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수요-공급 비즈니스 매칭 및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1. 7.26~8.20
총지원금 355백만원 지원

모집대상
XR(VR/AR/홀로그램)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접수기간
2021. 7.26~8.20.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각 사업기관별)

지원사업

| 사업명 | 사업기관 |
|--------------------------|-------------|
| 수요-공급 비즈니스 매칭 | 전북테크노파크 |
| XR소재 부품 장비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전북테크노파크 |
| XR소재 부품 장비 기업 사업화 지원 | 전북테크노파크 |
| XR부품 장비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지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XR소재 성능평가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지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XR소재 부품 장비 엑세서리 개발 지원 | 전라북도과학기술진흥원 |

평택도시공사, 평택호관광단지 사업 본격화...보상계획 열람 공고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 공고, 8월 5일~20일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평택도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5일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7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은 평택호관광단지 구역 내 토지와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이번 달 5일부터 2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 평택시청(관광과), 현대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금회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선임, 감정평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연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통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는 현대면 권관리 일원에 면적 663,115㎡(약 20만평)로 2020년 1월 2일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되어 추진 중이다.

평택호와 서해의 자연 자원과 입지적 이점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서해안 관광 메카로 개발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세종시-창업진흥원 '지역 창업 붐 조성'맞선

세종특별자치시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과 6일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지역상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원 ▲창업교육 연계 지원 ▲사회공헌 연계 협력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은 올 하반기



기부터 일부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세종지역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교육·창업자 발굴을 위한 콘텐츠를 시범운영한다.

양 기관은 또한 향후 스마트시티, 미래차 등 5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분야 스타트업 지원,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희 시장은 "시의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께 양질의 창업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 내 창업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의정부시, KB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협약 체결



의정부시는 8월 5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KB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KB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KB국민은행 후원,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대표 김수연)이 추진하는 지역단위 생활밀착형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연 8개 지자체 등을 선정,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0개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송산1동 작은도서관은 지난 7월 이번 사업에 공모해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현장 실사 후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의 후원금 1억여 원을 지원받아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이용 친화적 공간 디자인에 맞는 고급 소재의 맞춤형 가구 제작 설치를 진행하며, 이와 함께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료 및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2006년에 개관되어 15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온 송산1동 작은도서관은 연내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재개관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앞장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하구 KB국민은행동부지역영업그룹 대표와 김수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는 "시민의 일상에서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변화에 보탬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광명시,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준비 착착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 목표로 2020년~2023년 연차별 사업 추진

광명시가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로 거듭나고자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DC, 스웨덴)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33개국 417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강북구, 경기도 과천시, 부산광역시 등 총 19개 자치단체가 인증 받았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은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 구축, ▲모든 성별·연령·상황별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 그룹 손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국

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 참여 등 7가지이다.

광명시는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위해 2019년 3월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위원(15명), 안전도시실무위원(25명)을 구성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체계적인 사업으로 인증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2020년 1차년에는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2021년에는 안전관리수준 모니터링, 사업 추진 단계 모니터링, 지역안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국제안전도시 1, 2차 실사지원, 국제안전도시 사업 분야별 실적 분석, 안전네트워크 운영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광명시는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수행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역 안전수준을 개선하고 광명시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안전관리 전략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수행평

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종구 광명시 부시장,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전문가, 경찰서·소방서·시청 각 부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추진사업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구 부시장은 "광명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 준비는 시민이 주도한다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며 "2023년까지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MBC [복면가왕] 2주 만의 컴백! 여름 특집 '복면가왕', 보기만해도 시원해지는 음악바캉스 시작!

‘가요계 잉꼬’ 유성은♥루이 신혼부부, 결혼식 이틀 만에 ‘복강스’ 신혼여행으로 판정단석 출격!

오는 일요일 방송되는 ‘복면가왕’에서는 2연승 가왕 ‘화체’의 질주를 막을 복면가수들이 듀엣 정면승부를 펼친다.

여름 특집을 맞아 21인의 스페셜 판정단으로는 ‘원조 썸머퀸’ 톨라의 김지현, ‘여름 악동’ DJ DOC 정재용, ‘최장수 혼성그룹’ 코요태 신지, ‘8연승 가왕’ 손승연, ‘7월의 부부’ 유성은♥루이, ‘레전드 록바라더’ 조장혁, 플라워 고유진, ‘원조 음색퀸’ 애즈윌 민, ‘대세 작곡가’ 라이언전, 육종완밴드 육종완, 코미디언 안일권, T1419 케빈&건우가 새롭게 합류해 시원한 입담과 날카로운 눈썰미로 빅 재미를 선사한다.

이번 주, ‘복면가왕’이 올림픽 결방 2주 만에 재개된다. 올림픽 폐회식 시간에 맞춰 기존 방송 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겨진 오후 5시부터 방송되는 ‘복면가왕’은, 여름 특

집을 맞아 시원한 오프닝 무대뿐만 아니라 특급 상품이 걸린 이벤트까지 공개되며 판정단들을 열광케 한다는 후문. 과연 올림픽의 열기만큼 뜨거웠던 여름 특집 ‘복면가왕’은 어떤 모습이며 또, 2주 만에 돌아온 ‘복면가왕’에는 어떤 복면가수들이 등장해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가요계 대표 잉꼬부부로 거듭 중인 유성은♥루이가 결혼식 이틀 만에 신혼여행 대신 ‘복면가왕’ 판정단석에 출격한다. 그들은 깨부는 신혼 케미를 발산하며 모든 판정단들의 부러움과 축복을 동시에 받는데, 여름 특집을 맞이해 스페셜 무대까지 꾸미며 시원한 박수를 받기도 한다. 특히, 오프닝 무대에 앞서 승무원으로 깜짝 변신한 산다라박이 멋진 미모로 주목받기도 한다는데, 과연 실력과 부부 유



성은♥루이가 펼치는 여름 특집 축하 무대는 어떤 모습이고, 그들은 어떤 공방 케미로 신혼의 맛을 제대로 보여줬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시원한 노래와 웃음으로 중무장한 여름특집 ‘복면가왕’은 일요일 오후 5시, MBC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채널S, 천상계 예능神 다모았다!

신포맷 X 메가 트렌드 콕 잡은 ‘톱티어 콘텐츠’ 전방위 포진!

새로운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채널S(채널에스, 대표 김혁)가 이경규, 신동엽, 강호동, 김구라 등 대한민국 대표 예능인들의 ‘톱티어 콘텐츠’를 전방위로 독점 편성하며, 채널 경쟁력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널S는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 미디어S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전체 프로그램의 70% 이상을 오리지널 제작 콘텐츠 및 카카오펀터 엔터테인먼트와의 제휴를 통한 방송 독점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톤즈 3개월 만에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예능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채널S는 이경규, 신동엽, 강호동, 김구라 등 대한민국 예능계를 쥐락펴락하는 레전드 예능인들의 프로그램을 독점 편성해 눈길을 모은다.

이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채널S가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을 예고한다.

밍고 보는 카카오펀터 오리지널 예능 ‘전경규’에서 ‘예능 대부’의 옷을 벗고 거침없이 도전하는 이경규를 시작으로 허를 찌르는 재미를 선사하는 ‘맛집의 열집’에서 역대급 친화력과 입담을 보여주는 김구라의 모습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채널S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인 ‘신과 함께’ 시리즈에서 토크 마스터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신동엽은 다른 곳에서 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털어놓는다. 또한 한시도 눈을 땄 수 없게 만드는 콩트는 물론 연예계 대표 미식가다운 고급 정보들을 전하며 ‘신과 함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여기에 채널S 개국을 함께한 ‘잡동산’의 사장 강호동은 MC 김준현과 함께 ‘위대한 집콕 연구소’로 8월 중 다시 돌아온다. 강호동과 김준현의 만남만으로도 역대급 케미와 목직함 존재감을 예상케 한다. ‘위대한 집콕 연구소’에서는 두 사

람은 자신만의 레시피로 본격적인 쿡방 대결을 펼치며, 쿡방의 역사를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채널S 김현성 운영총괄은 “채널S는 이경규-신동엽-강호동-김구라 등 대한민국 예능계 톱티어 예능인들의 밧고 보는 예능 프로그램을 모두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채널이다.

채널S는 기존 TV 채널과 달리 새로운 포맷과 메가 트렌드를 이끄는 디지털 콘텐츠를 TV를 통해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시청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채널 경쟁력을 키워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채널S는 SK B tv에서는 1번, KT Olleh TV에서는 70번(7/22 변경), LG U+TV에서는 62번, 이밖에 B tv 케이블 66번, LG헬로비전 133번, 딜라이브 74번, HCN 210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B tv를 통해 채널S의 방송 VOD와 다양한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은기자



tvN 새 드라마 ‘흠타운’, 폭염 날릴 ‘강렬 임팩트’

검은 눈동자와 아이컨택 ‘온몸 소름’ 레거시 티저 영상 공개



tvN ‘흠타운’의 레거시 티저 영상이 첫 공개됐다. 의문의 미스터리 프 재생과 동시에 물에 젖은 정체 불명 눈동자와 아이컨택 되면서 일순간 소름을 돋게 한다.

2021년 하반기 웰메이드 기대작

tvN 새 드라마 ‘흠타운’은 1999년 사주사, 연이은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유재명 분)와 납치된 조카를 찾아 해매는 여자(한예리 분)가 사상 최악의 테러범(엄태구 분)에 맞서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비밀의 숲2’를 통해 탄탄한 연출력을 인정 받은 박현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밧고 보는 연기파 군단 유재명, 한예리, 엄태구가 출연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그런 가운데 ‘흠타운’ 측이 ‘레거시 티저 영상’을 첫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미스 테이프, 적색 플래시 불빛, 섬뜩한 눈동자가 나열된 강렬한 비주얼이 단 15초만에 보는 이를 압도하며 역대급 장르물의 탄생을 예고한다.

공개된 ‘레거시 티저 영상’은 쌓여있는 수많은 카세트 테이프 문지 속 누군가가 ‘미스 테이프’를 짚으며 시작된다.

사주사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시작을 알리듯 붉은 조명이 켜지고 천천히 돌아가던 카세트 테이프의 테이크업 릴이 돌연 역방

향으로 되감겨 긴장감을 터트린다. 더욱이 이후 정체불명의 기괴한 주술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몸 소름을 돋게 한다.

무엇보다 영상 말미 나타난 물에 젖은 여자의 검은 눈동자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며 공포와 함께 ‘흠타운’에서 그려질 미스터리 스릴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과연 미스 테이프와 현재 일어나는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과거 벌어진 테러사건이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궁금증을 한껏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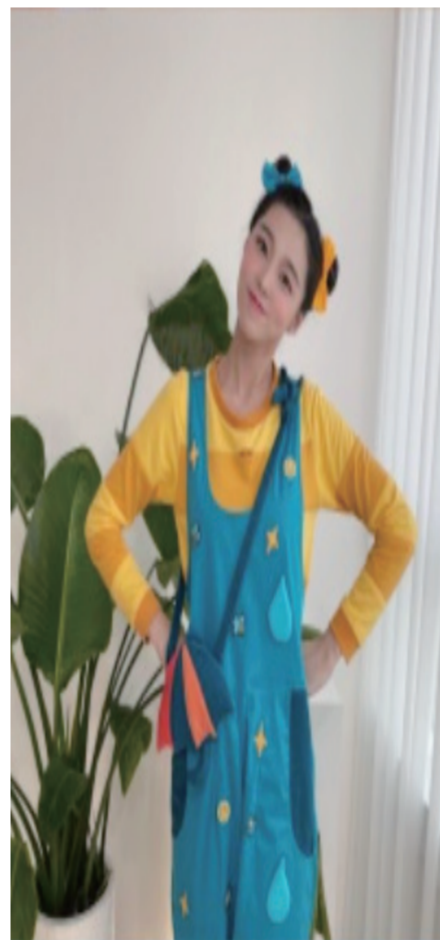
이에 ‘흠타운’ 제작진 측은 “미스 테이프에 의해 현재의 연쇄 살인 사건과 과거의 테러사건의 서막이 오른다”면서 “미스 테이프의 정체가 무엇이고 누구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이와 얽힌 비밀과 진실을 쫓는 과정이 매회 풀기 힘든 긴장감을 자아내며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폭염을 날릴 만큼 강렬한 ‘미스터리 스릴러’를 선보일 것이니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tvN 새 드라마 ‘흠타운’은 2021년 9월 첫 방송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MBC [뽀뽀뽀 좋아좋아] 더욱 새로워진 ‘뽀뽀뽀 좋아좋아’ 9일 첫 방송



MBC 대표 유아 프로그램 ‘뽀뽀뽀’가 ‘뽀뽀뽀 좋아좋아’로 새롭게 돌아온다.

‘뽀뽀뽀 좋아좋아’에서는 3가지 코너가 신설된다.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어린이들의 질문을 뽀미 언니와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세상 모든 게 궁금한 나이? 세모궁’, 어린이들이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불러주는 ‘뽀뽀뽀 신정곡’, 정글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친한 ‘짐’과 함께 어린이들이 방송을 보며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정글짐’ 등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튼튼하게 할 예정이다.

‘뽀뽀뽀 좋아좋아’의 뽀미언니는 ‘뽀뽀뽀 친구친구’에 이어 변함없이 뮤지컬 배우 이서영이 맡는다. 걸그룹 헬로비너스 출신의 뮤지컬 배우 이서영은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추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을 좋아해 뽀미언니가 된 것을 무엇보다 행복해 하는 대체불가 뽀미언니이다.

더불어 뽀뽀뽀 어린이를 대표하는 아역배우 서인성, ‘정글짐’을 지키는 어린이들의 히어로 ‘짐’은 액션배우 김용석이 맡는다.

새롭게 시작하는 MBC ‘뽀뽀뽀 좋아좋아’는 오는 9일 낮 12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 첫 번째 OST 주자 이승열 확정!

지진희-윤세아-김혜은 주연 tvN ‘더 로드 : 1의 비극’

배우 지진희, 윤세아, 김혜은, 천호진, 안내상 등이 출연하며 탄탄한 배우 라인업으로 화제가 된 tvN 새 수목 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이 가수 이승열을 첫 OST 주자로 확정했다.

5일 ‘더 로드 : 1의 비극’의 OST 제작은 맡은 Stone Music Entertainment에 따르면 ‘더 로드 : 1의 비극’의 첫 번째 OST 가창자로 21세기 한국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이승열이 확정됐다.

지난 1994년 유엔미블루라는 2인 밴드로 데뷔한 이승열은 2003년 1집 ‘이날, 이때, 이즈음’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섰다.

이후 발매하는 앨범마다 참신하면서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모던록 노래 부문, 2012년 최우수 모던록 음반과 노래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tvN 드라마 ‘미생’, ‘시그널’ OST에 참여해 시청자에게도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이번에 이승열은 ‘더 로드 : 1의 비극’의 OST Part 1 ‘Memories’ 가창을 맡아 드라마의 인기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그가 가진 특유의 음색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동료 뮤지션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승열의 합류로 ‘더 로드 : 1의 비극’ OST 역시 출연진 못지 않은 화려한 라인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Memories’는 프로그레시브 록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로 ‘더 로드 : 1의 비극’의 음악감독인 박성진 감독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 서정적인 스트링 편곡에 어우러진 이승열의 중후한 음색이 강한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OST 제작사 측은 “점차 고조되는 사운드가 특징으로 듣는 순간 압도되는 느낌을 선사하는 강렬한 노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열이 부른 ‘더 로드 : 1의 비극’ 첫 번째 OST ‘Memories’는 오는 5일 정오 발매된다.



한편 tvN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극본 윤희정/ 연출 김노래/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더그레이트 쇼)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 벌어진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얽힌 침묵과 회피, 비밀로 인해 벌어지는 또 다른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 미스터리 드라마로 지진희, 윤세아, 김혜은, 천호진, 안내상 등이 출연한다.

tvN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은 매주 수목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베리베리’ 계현! 파격적 오렌지 컬러 X주근깨 메이크업

시크한 반양아 눈빛으로 ‘비주얼 쇼크’ 완성! 컴백 기대감 극대화!

베리베리(VERIVERY) 계현이 파격적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개인 오피셜 포토를 공개했다.

베리베리는 4일 0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시크한 반양아 무드를 완성한 계현의 개인 오피셜 포토를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개된 사진은 ‘LOCK’ ver.과 ‘SINK’ ver. 총 두 가지 버전으로, 계현은 파격적 오렌지 컬러의 헤어스타일을 과감하게 시도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시크한 표정 속에서 반항적이면서도 깊고 아름다운 눈빛을 자랑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계현은 독특한 주근깨 메이크업으로 완벽한 ‘비주얼 쇼크’를 완성시켜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새 앨범 ‘SERIES ‘O’ [ROUND 2 : HOLE]’에 대한 콘셉트와 세계관에 대한 궁금증도 높이고 있다.

매 앨범마다 한계 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베리베리는 최근 공식 커밍순 티저를 시작으로 강민, 연호, 계현의 개인 오피셜 포토를 연달아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난 3월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앨범 ‘SERIES ‘O’ [ROUND 1 : HALL]’를 통해 각자가 지니고 있는 어두운 내면의 공간을 발견하고, 이 어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메

시지를 전했던 베리베리가 두 번째 ‘O’ 시리즈인 새 앨범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신비롭고 치명적인 분위기를 담은 콘텐츠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컴백 예열에 나선 베리베리는 오는 23일 여섯 번째 미니 앨범 ‘SERIES ‘O’ [ROUND 2 : HOLE]’을 통해 또 다른 매력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